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70 YEARS HISTORY 1947-2017

열다
짓다

—— 그리고

잇다



기업문화사

1947 ————— 2017

현대건설 70년사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70 YEARS HISTORY 1947-2017

열다
짓다

—— 그리고

잇다

1947

2017

기업문화사



현대^{現代},
현대적,
현대건설다운.

1947년 5월 서울 초동(草洞) 현대자동차공업사 공장 한 칸에서 출발한 현대건설이 어느덧 창립 70돌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직후는 건설의 미명기(未明期)나 다름없었으니 현대건설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건설은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빈곤하고 궁핍했던 시대에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국가 재정에 보탬고 국토 개발의 최전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성장연대의 일등 주역에서 이젠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70년사〉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70년 사사(社史)를 펼쳐 보면서 새삼 현대건설 70년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온 선배, 동료, 후배 임직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현대’라는 단어에는 ‘앞서가는’, ‘모던한’, ‘세련된’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47년 회사 창립 당시에는 ‘현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상상 속의 밝은 미래’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사명(社名)에는 가슴 뛰는 미래를 열어갈 도전과 창조, 개혁의 기업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업정신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어떠한 불굴의 역사를 일궈왔는지는 〈현대건설 70년사〉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것을 통해 새것을 익힌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복기해보면 앞으로 걸어갈 길과 좌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건설 70년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더욱 ‘현대건설다운 미래 70년’을 열어가는 데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정 몽 구



열고,
짓고,
이어가는

현대건설의
사명^{使命}

현대건설이 창립 70돌을 맞아 〈현대건설 70년사〉를 발간합니다.
현대건설이 걸어온 70년의 발자취를 기록물로 남길 수 있게 되어
현대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총 3권으로 편찬된 〈현대건설 70년사〉에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땀과 열정으로
쌓아온 70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 권인 ‘열다’는 현대건설 특유의 도전정신과 뿌리 깊은 DNA가 기업문화로
응축되고 발전해온 결과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정신이야말로
우리 현대건설이 1등 건설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토 개발과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2권인 ‘짓다’는 현대건설이 70년 동안 맡았던 주요 프로젝트를 공종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저희 같은 건설인들은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완공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 교량, 항만, 도로, 플랜트 등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인류의 유산(遺産)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권 ‘잇다’는 1947년 현대건설 창립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간략하게
훑어볼 수 있는 통사입니다. 70년 사사(社史)의 첫 독자로서,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켜켜이 쌓여 있는 현대건설의 발자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설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으로 건설에 임합니다. 건축물 어디에도 건설인의 이름은
새겨지지 않지만 그런 보람과 사명감이 하나하나 쌓여 자랑스러운 건설의 역사가
됩니다.

각 산업 부문 간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통해 내재화된 현대건설의
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4차 산업혁명은 현대건설에
또 다른 도약과 기회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건설 70년사〉가 새로운 미래를
이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5월
현대건설 사장 | 정 수 현

열다

짓다

그리고

있다

현대건설 70년사

일러두기

〈현대건설 70년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건설사로 발돋움한 현대건설의 기업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1권 '기업문화사-길을 열다', 인프라·건축·플랜트·전력·연구개발 등의 주요 건설 분야 10개 테마의 발전사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명한 2권 '프로젝트사-내일을 열다', 경영상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70년 역사를 기록한 3권 '한눈에 보는 70년사-역사를 잇다' 등 총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70년사〉의 모든 표기는 한글맞춤법과 로마자표기법을 준용한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했으나, 영문 약자 및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원어 표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와 영자 등 외국어를 병기했으며, 회사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포함된 프로젝트명(공사명·현장명) 등은 되도록 현재의 표기법을 따랐다. 또한 괄호 안의 날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준공일로 표기했다. 본문 문장에 포함된 모든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했고, 조·억·만 등의 보조단위를 사용했다. 보조단위를 사용한 숫자에서 콤마(,)는 생략했다.

열다

기업문화사

기념사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현대(現代), 현대적, 현대건설다운.

발간사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열고, 짓고, 이어가는 현대건설의 사명(使命)

THINKING OF HYUNDAI E&C

010 INFRA & ENVIRONMENT WORKS

012 BUILDING WORKS

014 PLANT WORKS

016 POWER & ENERGY WORKS

H-VALUE CHAIN

020 친환경 자원순환형 그룹 구조도

022 현대자동차그룹 시너지

H-SPIRIT

028 핵심가치 임직원 에세이

H-POWER

038 현대건설의 오늘이 있기까지 - 건우회 좌담회

050 기분을 지키다

056 고객 만족을 넘어 최고에 도전하다

062 기술이 미래다

068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 탐방기

072 인재를 만들어진다

076 가족과 함께하다

080 성공 신화를 쓰다

H-HARMONY

086 나눔 이야기

094 숫자로 보는 나눔 현황

096 동반성장 이야기

100 협력사 미니 인터뷰

102 윤리경영 이야기

106 수상 실적으로 알아보는 지속가능경영

H-VICTORY

110 현대건설배구단 활약상

116 배구단 미니 인터뷰

H-CHALLENGE

120 세계지도 위에 그린 명작들

124 글로벌 진출기

132 글로벌 진출 타임라인

EPILOGUE

134 현대건설의 빛나는 수상 기록

짓다

프로젝트사

1. 땅과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다

012 20세기 인류의 지도를 바꾸다

018 바다보다 넓은 땅, 서산간척지와 새만금방조제

026 동남아 해안을 디자인하다

2. 시대와 세상을 잇다

042 시대를 이은 다리, 고령교와 한강인도교

046 '한강의 기적', 혹은 '한강 다리의 기적'

054 현대건설의 교량기술, 세계를 잇다

3. 인류 문명의 뉴런, 세계와 미래를 향해 달리다

068 국가 산업의 대혈맥을 뚫다

076 고속도로 시대, 선두에서 길을 만들다

082 세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달리다

4. 세상의 심장이 되다

098 우리나라 전원(電源) 개발의 살아 있는 역사, 현대건설

102 현대 스탠더드를 송전하라!

108 고효율·친환경 전력 네트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5. 세계의 랜드마크가 되다

120 한국 건축의 살아 있는 역사, 현대건설

130 세계의 랜드마크, 현대건설의 기술을 품다

136 삶을 담은 그릇, 병원·스포츠경기장·호텔 건축

6. 인류와 자구의 가능성을 품다

158 산업화 시대, 플랜트의 기초를 닦다

166 오일·가스 플랜트로의 도전과 고도화

174 현대건설 플랜트, 더 넓은 세계를 겨냥하다

7. 원자력 강국의 미래를 쓰다

186 제3의 불, 발화(發火)하다

192 원전 건설기술 자립의 대장정

198 현대건설의 한국형 원전, 세계와 미래를 정조준하다

8. 극한 건설에 도전하다

210 극한 건설 도전의 시작

212 꿈의 인큐베이터, 남극세종과학기지

218 두 번째 극지 건설 도전, 남극장보고과학기지

9. 탁월 그리고 완벽의 이름, 힐스테이트 & 디에이치

226 마포아파트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까지

230 힐스테이트로 이어진 현대아파트의 신화

238 탁월한 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
완벽한 프레스티지 라이프 '디에이치'

10. 건설 R&D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252 현대건설 R&D 조직의 태동과 발전

256 미래를 설계하다, 현대를 건설하다

있다

한눈에 보는 70년사

008 VISUAL INTRO

012 1947. 5 현대건설 신화(神話)의 시작, 현대토건

016 1950. 6 6·25전쟁의 전화(戰禍) 속에 현대건설의 깃발을 꽂다

019 1957. 9 전후 복구의 선봉에서 한국 건설의 주역으로

022 1961. 1 무교동 시대의 개막과 사업적 기틀의 완성

024 1962. 1 경제개발계획의 중심에 서다

026 1966. 1 태국 파타나라티왓 고속도로,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다

028 1968. 2 경부고속도로, 고속 성장의 가속페달이 되다

030 1974. 12 건설-자동차 양대 사업의 거보를 내딛다

032 1975. 4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시대를 열다

034 1975. 8 오일쇼크를 딛고 중동 시장을 공략하다

036 1976. 1 세종로 신사옥 이전, 그룹 경영체제의 완성

038 1978. 7 원전 건설과 에너지 자립의 꿈

040 1980. 12 자산 1조 원 시대 돌입과 경영관리의 현대화

042 1982. 3 세계 10대 건설사 도약과 계동 시대의 개막

044 1982. 4 서해안 지도 바꾼 대역사, 서산간척사업

046 1989. 1 잠자는 시장을 깨우다, 북방 시장 공략

048 1990. 8 중동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세계시장을 향한 멈추지 않는 진군

050 1992. 1 국가 대도약 기틀 닦은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수행

052 1993. 12 글로벌 스탠더드로 건설 시장 개방에 대비하다

054 1996. 1 그룹 경영체제의 변화와 현대건설의 높아진 위상

058 1996. 11 마북 기술연구소 준공과 건설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

060 1997. 11 IMF 외환위기 속 해법을 모색하다

062 1998. 6 1001마리 소떼가 넘는 반세기 분단의 장벽

064 2001. 3 유동성 위기와 워크아웃

066 2002. 1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IT 인프라 확충

068 2002. 3 중동 시장 영토 회복과 아프리카·중남미 진출 본격화

070 2006. 5 워크아웃 졸업과 최고 건설사 위상 회복

072 2006. 9 현대아파트의 새로운 이름, 힐스테이트

074 2009. 7 시공능력평가 1위 재탈환, 건설 종가의 위상을 회복하다

076 2011. 4 아름다운 동행,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으로

080 2011. 4 조직 안정화와 표준 조직구조 정착

082 2011. 4 현대건설배구단 통합우승, 축포를 쏘아 올린다

084 2011. 5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경영에 앞장서다

087 2011. 7 디자인경영 체제의 돌입

091 2012. 3 녹색경영의 선두에 서다

093 2013. 1 리스크관리의 강화, 내실경영의 기틀을 바로잡다

095 2013. 11 해외 수주 누계 1000억 달러 돌파, 글로벌 건설의 신기원을 이룩하다

098 2014. 1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을 향한 윤리경영의 실현

100 2014. 2 新계동 시대 돌입, 건설 부문 진용을 완성하다

102 2014. 4 똑똑하게 일한다, 워크스마트

105 2014. 10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 준공과 건설 R&D의 성과

108 2015. 3 글로벌 인재경영, 세계에 현대건설의 훈을 심다

110 2016. 6 나눔경영, 밝고 따뜻한 세상의 빛이 되다

114 2016. 7 힐스테이트 1위 브랜드 등극과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돌풍

116 2016. 9 현대건설, 영원한 전진을 증명하다

118 2017. 5 창립 70주년, 멈추지 않는 신화를 향하여

THINKING OF HYUNDAI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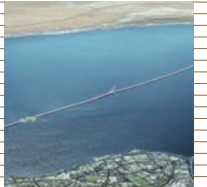
현대건설의 4대 핵심 사업 영역

1947년 설립 이래 70년 역사를 일궈온 글로벌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현대건설. 현대건설의 4대 핵심 사업 영역은

인프라 · 환경, 건축, 플랜트, 전력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서 신기원을 개척해왔다.

현대건설은 '내일을 창조하는 기업(We build Tomorrow)'이라는 변함없는 가치 아래 전통과 혁신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창조해가고 있다.



**INFRA &
ENVIRONMENT
WORKS**



**BUILDING
WORKS**



**PLANT
WORKS**



**POWER &
ENERGY WORKS**

INFRA & ENVIRONMENT WORKS

현대건설의 가장 큰 기술은 상상력입니다

지구라는 한정된 무대 위에서 현대건설이 그리는 꿈은 그 경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정과 노력에 기술과 상상력을 더해온 70년의 시간. 현대건설은 지도를 바꾸고

상식을 깨뜨리며 인류의 삶을 바꾸어왔습니다.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리에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바다 위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항만시설을 우뚝 세우는 등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가져다줄

핵심 인프라를 전 세계에 건설하며 모두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UILDING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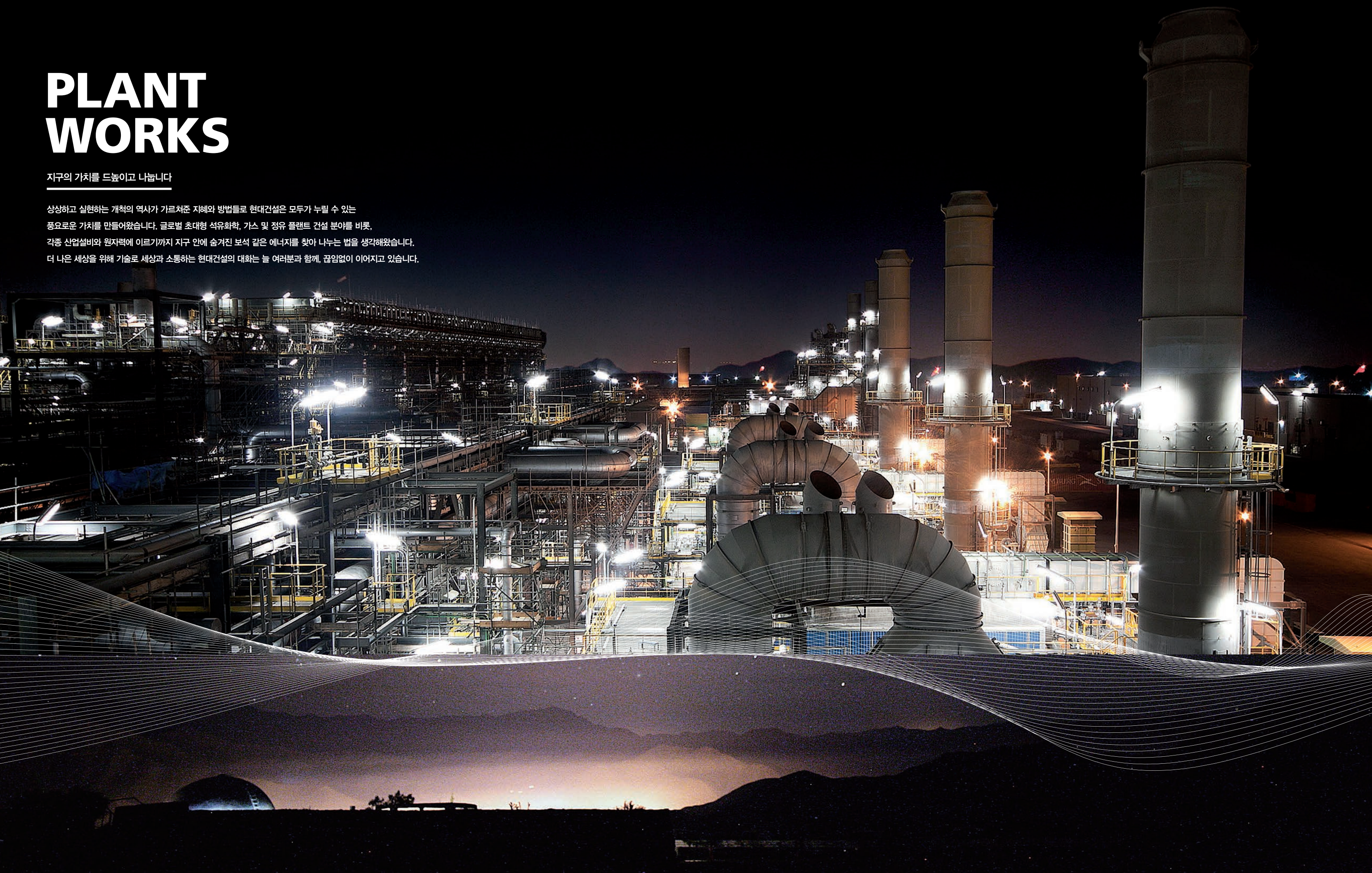
인간을 향해, 미래를 향해 공간을 진화시킵니다

시대를 앞선 기술력이 현대건설의 경쟁력이라면, 사람을 위해 더 멀리 내다보는 신념에 찬 노력은 현대건설의 자긍심이자 책임감입니다. 현대건설이 창조하는 모든 공간이 인간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정보, 환경, 기술이 공존하는 최첨단 공간으로 인정받은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품질. 그 뒤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에서부터 상업, 의료, 교육문화시설에 이르는 기존의 건축 영역을 넘어 친환경 그린빌딩, 메가 프로젝트 등 사업 콘텐츠를 확대하며 내일의 공간을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PLANT WORKS

자구의 가치를 드높이고 나눕니다

상상하고 실현하는 개척의 역사가 가르쳐준 지혜와 방법들로 현대건설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가치를 만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초대형 석유화학, 가스 및 정유 플랜트 건설 분야를 비롯,
각종 산업설비와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지구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에너지를 찾아 나누는 법을 생각해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술로 세상과 소통하는 현대건설의 대화는 늘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OWER & ENERGY WORKS

에너지로 자연과 미래를 잇습니다

현대건설은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자연과의 동행에 힘을 더할 때, 희망의 크기를 나눠 가질 때, 오늘이 움직이고 내일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인류를 밝히는 더 좋은 가치를, 고객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보듬는 넓은 품을 생각하기에, 현대건설의 에너지 사업은 70년 시간 동안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력산업을 시작으로 발전, 담수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이어지는 푸른 곡선을 그리며 현대건설은 미래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자원순환 가치를 창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

H-VALUECHAIN

2011년 4월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이 된 현대건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계열사 편입·편재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기업 구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혁신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으로서의 현대건설은
그룹의 가치와 맥을 함께해
자동차, 철강, 물류, 금융·서비스,
IT와의 조화로운 자원순환과 협업을 통해
그룹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존중 및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해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TOGETHER FOR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A BETTER FUTURE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
땅에 스며들어 생활용수가 되고 다시 정화되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보여준다.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해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
수명을 다한 자동차에서 수집된 철로 만든 강재를 건물의 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율은
극대화하고 물류·금융·IT 등 다양한 사업 부문과 어우러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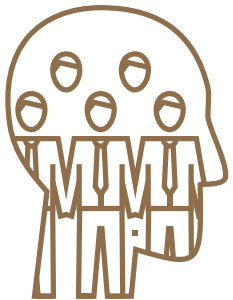
미래를 위해 날개를 펴다
현대건설은 홀로 빠르게 앞서가는 것보다 함께 어우러져 나아감을 추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인간
존중과 친환경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그룹 간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건설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건설을 중심으로 자동차, 철강 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을 통해 친환경 순환구조를 갖추
는 것은 물론, 물류·금융·IT 사업 부문의 서비스와 기술을 연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인류가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대건설의 동행은 쉽 없이 진행하고 있다.



WE BUILD TOMORROW

함께 내일을 창조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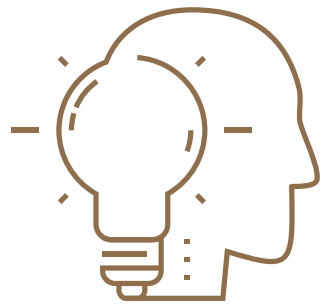
용기 있는 자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
때론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하기에 내일의 새로운 길을 여는 주인공이 된다.



V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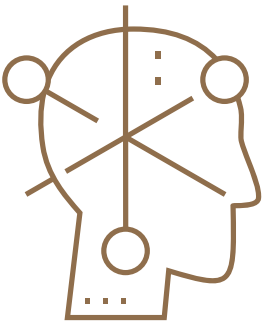
적극의지
투철한 주인의식과
능동적인 태도로
미래를 개척

현대건설은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적 예지, 미래를 개척하는 적극의지, 미래를 현실화하는 강인한 추진력을 갖추고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 현대정신으로 무장해 미래를 선도하고자 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기에 그 길은 더욱 빛나고 있다.



WISDOM

창조적 예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조적 자세와
지혜를 추구



IMPELLENT

강인한 추진력
글로벌 사업 수행을 위한
강인한 정신과 추진력을
배양하고 체질화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초연결 지능형 라이프스타일을 열다

현대건설은 세상의 변화보다 한발
빠르게 나아가고자 한다.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건설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과 산업
간의 연결을 지향한다. 제철에서
시작한 철강은 자동차를 거쳐
건설로 이어지며 물류와 금융, IT를
통해 보다 특별해진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대건설, 연결의 이유

상상한다는 것,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현대건설은 지도에 없는 영토를 개척하고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지구와 환경에 대한 고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상과 도전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하기에 더욱 힘을 얻는다. 2013년 현대건설은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Green Smart Innovation Center) 프로젝트에 착수해 2014년 말 완공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착수할 당시만 해도 에너지 소비 패턴과 실내환경의 이상 징후를 건물 이 스스로 포착한 다음, 자동화된 에너지 절감 운전제어는 물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그룹사 간 협업 체계 속에서 개발한 Smart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를 통해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는 똑똑한 건물로 완성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공조복합제어, 에너지생산·저장·소비를 총괄제어하는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 통합제어 등 소프트웨어 기술만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약 25%, 에너지 비용은 연간 50%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끊임없이 상상하고 도전했기에 마침내 이루어낸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협업 그룹사	과제명	진행 현황
현대자동차	창호대용 BIPV	진행
	지능형 교통 시스템	완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차량운행정보 활용 도로 기능 향상	완료
현대제철	제철 폐수 재이용 슬래그 활용 경량골재 부산물 활용 도로포장 수소연료전지	진행
	자원순환형 프리캐스트 부재 고강도 건축구조용 강재	완료
현대오토에버	조류발전 구조물 시공 안전성 통합감시 S/W Smart BEMS	진행
	수중 정밀시공 모니터링 시스템 해상기초 침하량 예측기법	완료
현대엔지니어링	기초말뚝 배치안 해석 회전기계 진동설계 기술 배관동적설계 기술 원전해체사업 진출 기술협력 태양열 발전 기술개발 차세대 MBR 공정 실증	진행
	모듈러 실험주택	완료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연구 진행 현황(2016년 현재, 진행 13건, 완료 7건)



HMG SYNERGY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미래 모빌리티'. 과연 그 실체가 어떤 모습일지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가 머리를 맞댔다. 미래 모빌리티가 자동차 제조사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래에는 차량과 집이 하나로 연결되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할 것이기에 현대건설의 활약은 그만큼 빛났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Customer Electronic Show)에서 자동차와 집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되는 미래 콘셉트인 'Mobility Vision'을 발표하고, 이어진 서울모터쇼에서 현재와 근미래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선보였다. 집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홈투카(Home to Car)'와 자동차 안에서 외부 생활공간을 제어하는 '카투홈(Car to Home)' 서비스가 바로 그 결과물. 집에서 음성인식을 통해 차량의 위치나 실내 공조

현대자동차그룹 협업으로 현대건설이 건설한
지능형 교통제어 시스템 적용 도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부터 차량에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버튼을 통해 집안 에어컨 등을 조작하는 것까지 차량과 집이 하나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차량제어는 물론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기술, 주거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 적용될 수 있었다. 미래의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의 기술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동차에서 가정, 사무실, 도시까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차량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커넥티드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요구한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이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는 2018년에 홈투카 서비스를 국내시장에 먼저 론칭하고 향후 자율주행기술과 연계해 카투홈 서비스를 2019년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초연결 지능형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 중이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준비는 이미 끝났다. 미래를 보다 빠르게 눈앞에 펼쳐기 위해 오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지능형
교통제어 시스템
교통혼잡 해소



스마트한 도로를 완성하다

도로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의 도착시간 안내에서부터 도로전광판의 정체 및 우회로 알림, 교통사고 정도, 도로 낙하물, 싱크홀 등의 안내까지 도로 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진보된 일상은 '지능형 교통제어 시스템(ITS: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 덕분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ITS 기술을 도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한 이듬해인 2012년부터 연구개발본부 첨단재료연구팀 내 도로·교통 분야를 신설해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 현대엠엔소프트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워킹그룹에 참여해 연구에 보다 매진하게 됐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은 2014년 선보인 '차량 정보 이용 노면온도 예측 시스템'이다. 기상관측 장비에 의존한 기존 도로기상정보 시스템(RMS: 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과 달리 차량 외기온도, 도로 노면센서, 기상청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기 때문에 터널이나 음영구간 제약 없이 도로의 모든 구간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제2영동고속도로에 적용되어 있다. 창원-부산 간 도로 현장에 시범 적용한 '터널 내 대피안내 시스템' 역시 현대자동차그룹 ITS 워킹그룹의 결과물이다. 터널의 경우 폐쇄된 공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CCTV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으로 체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현대건설의 터널 내 대피안내 시스템은 차량 내에 설치된 '차량 진단·감시 모듈(OBD: On-Board Diagnostics)' 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터널에 멈춰선 차량이 교통정체 때문인지 사고나 고장 때문인지 바로 진단하는 것이다. 차량 정보,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건설 노하우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이와 같은 연구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고객최우선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고객감동의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도전적 실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며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창의적 사고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소통과 협력

타 부문 및 협력사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나눔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인재존중

우리 조직의 미래가 각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역량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인재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간다.



글로벌 지향

문화와 관행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를 지향하고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존경받는 개인과 조직이 되고자 한다.

현대건설 임직원이 쓴 핵심가치 에세이

H-SPIRIT

우리들의 DNA에는 이유가 있다.
70년의 역사 동안 현대건설인들을
하나로 모아준 구심점은 바로 현대정신.
그 현대정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가치와 맞닿아 있다. 고객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존중,
글로벌 지향은 현대건설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바탕이 되는 원칙이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대건설의 빛나는 DNA, 현대건설인이
지닌 특별함에 대해 말한다.

현대건설답지
않도록
현대건설답게
도전하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수주 프로젝트

제주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홍승모 부장대우

서울의 상징이 될, 또 하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설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들의 가슴은 뛰었다. 서울 시내 단일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사옥을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하고 있으며 그 사옥의 주인공은 바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것. 경쟁사가 이미 공장과 지방 사옥 공사를 도맡아 해냈던 터라 과연 이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그 한마디에 도전했다.

영업의 기본은 상대를 먼저 파악하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기본적인 회사 정보를 섭렵하고, 선대 경영진의 일대기를 공부하고,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성향을 파악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아모레퍼시픽을 연구했다.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제품을 사용해보는 건 필수. 그 결과, 우리 현대건설과는 너무나도 다른, 감성적이고 향기에 민감한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제안서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취향에 맞게 바꿔보자고 중지를 모았다.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표지 디자인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서체나 용지의 선택에도 세심함을 더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렸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보이던 이들조차 ‘현대건설에도 이런 면이 있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침내 화장품 패키지를 닮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외관을 형상화한 케이스에 향기 나는 제안서를 담아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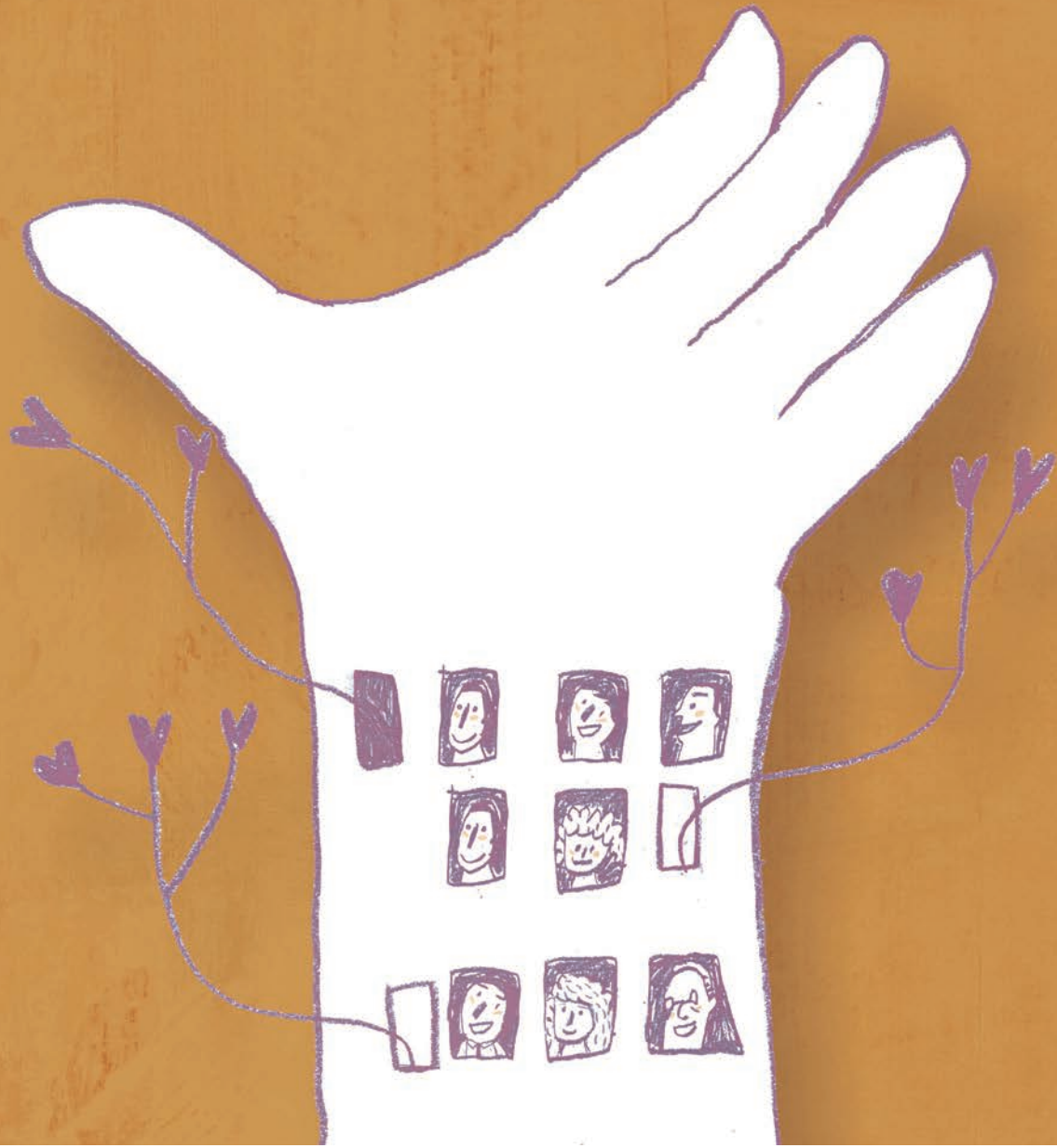
고객최우선



도전적 실행

이제 영업의 마지막인 기술제안 발표회. 기존의 딱딱한 발표가 아닌 건축 문외한들도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 만한 감성적인 내용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꾀했다. 시나리오 작가, 제안서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해 기존 건설회사의 분위기를 말끔하게 없앴다. 심지어 메이크업과 헤어 전문가까지 동원해 스타일링한 후 발표에 임했다. 발주처를 감동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설사 수주가 되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PT를 마쳤다.

머칠이 지나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는 낭보를 들었을 때, 준비한 모든 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특히 발주처로부터 현대건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호평까지 받아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현장은 지금도 최고의 품질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노력은 준공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의
신기술을 적용한초
대형 케이스
제작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조일수 차장



고객최우선



도전적 실행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현대건설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1995년 파시르판장 컨테이너터미널 2단계(Pasir Panjang Terminal Phase 2, 이하 PACOT), 1997년 주룽섬 연륙로 건설공사(Jurong Island Road Link Project, 이하 JUROP), 2007년 파시르판장 컨테이너터미널 3&4 단계(Pasir Panjang Terminal Phase 3&4, 이하 PACO2)를 이어오면서 도전적 실행을 통한 혁신을 이뤄 왔다.

PACOT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장형 생산 방식 도입과 더불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5000톤급 케이스의 제작 및 설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세계 최초의 슬라이딩 진수 공법을 수행해 케이스 설치에 있어 혁신을 주도했다. 이어진 JUROP에서는 세계 최초로 더블 갠트리 타입의 공장형 생산 방식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어진 PACO2에서는 IP-CCV라는 개별압송 케이스 이송장치 도입을 통해 1만 톤 이상의 대형 케이스 제작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싱가포르 최초로 최대 1만 1000톤급의 케이스 150함을 제작 및 설치해 더욱 주목받았다.

혹자에게는 그저 단순히 보이는 박스 모양의 구조물인 케이스은 지난 30년간 현대건설의 헌신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일군 결과물이다. 현대건설은 스스로와 경쟁하며 최고임을 증명해왔다. 시간이 흘러 현대건설이 최초로 개발한 이 공법들은 국내외의 모든 업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제작의 교과서가 되었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현장에서도 케이스 제작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에서는 싱가포르 최초로 케이스에 유로코드(Eurocode)를 적용한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싱가포르 항만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기존 설계 기준인 BS코드는 발간된 지 30년 이상된 코드로 싱가포르 건설국(BCA)은 2015년 4월부터 유로코드 적용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8월에 수주한 현대건설은 BCA의 정식 공표 전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유로코드를 적용했으며 그 결과 설계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약 30% 줄여 철근량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하나, 현대건설이 자체 개발한 국내 건설 신기술 제760호인 ‘자동화 온수 양생 공법’을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매스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하는 수화열에 의한 내외부 온도차를 20도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온도차에 따른 불필요한 균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법이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에서는 이 공법을 적용해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했으며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품질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발주처의 신뢰를 얻은 것은 당연지사.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반잠수선 HFD20000호는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HFD20000호는 단순한 장비를 넘어서 협력의 산물로 케이스 제작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타사 보유선 대비 형고가 높고 폭이 넓어서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케이스 제작에 특화된 형태다. 더불어 기타 안벽 공사, 대형 해상 구조물 수리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항만공사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피하지 말 것,
포기하지 말 것!
돌파구는
반드시 있다

협력사 지원 및
관리 운영

외주실 상생협력팀
유해린 과장

현대건설은 매년 협력사와 함께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열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구매분부가 진행하는 가장 의미 있는 동반성장 행사로 꼽힌다. 특히 2016년의 행사는 핵심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훈을 남겼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주관하는 행사라 긴장이 많이 됐다. 협력사 선정부터 제주도 항공권 예약, 프로그램 구성 등 챙길 것이 무척 많았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닌 기발함과 신선함을 더해야 한다는 미션도 부여되어 고민도 컸다. 사실 정형화된 행사에 새로운 기획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안했으나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고 어느덧 행사 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연일 회의는 계속되었고 때마침 월례조회 때 언급된 ‘감성경영’이란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혔다. 동반성장과 감성경영의 컬래버레이션, 기가 막힌 해결책이라며 모두 무릎을 쳤다. 방향이 정해지자 주제는 금세 좁혀졌다. 그 주제는 바로 아버지. 협력사 경영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평소 아버지께 하지 못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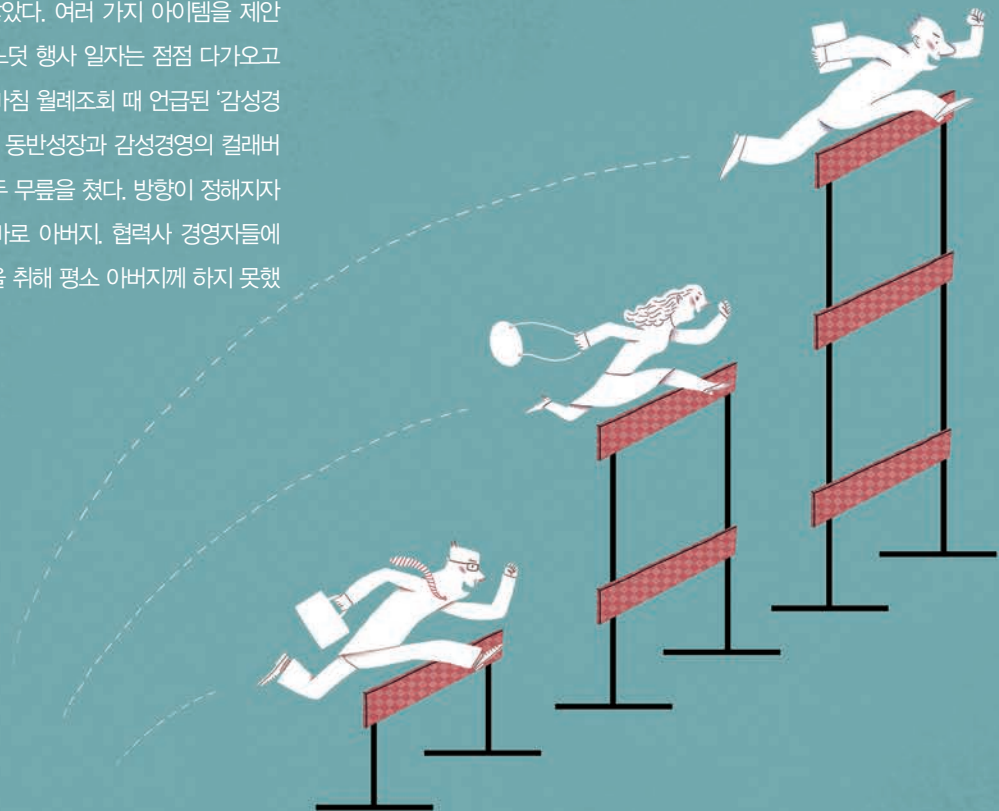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던 말들을 영상 편지로 구성했다. 행사 당일 만찬장에 영상이 상영되고 영상의 주인공들을 비롯해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게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첫날 행사는 순조로웠으나 다음 날 30년 만에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얼른 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둘렀지만 이미 전체 항공편은 취소된 지 오래. 150여 명에 달하는 참석 인원은 순간 갈 곳을 잃었고 계속 대기할지 근처 숙소를 잡고 상황을 지켜볼지 빠른 결정이 필요했다. 언제 그칠지 모르는 폭설 속에 마냥 떨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일보 후퇴를 결정했다. 결국 행사는 본래 일정보다 이틀이 더 지난 후에야 겨우 날씨가 풀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고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돌아왔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건, 일하다 보면 아니 살다 보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그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반드시 찾게 된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정답도 해답도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글로벌 탈런트
프로그램

인사실 인사지원팀
구본수 차장

현대건설은 다년간 수많은 국가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한국인 중심의 문화와 업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외국인들에게 다국적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 대부분은 업무에서 외국인 임직원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 인재들의 경우 해외 사업장에서 대부분 한국인들의 업무 보조 역할로, 선진국 인재들의 경우 한국인과의 협업이 아닌 대부분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곤 했다.

더 이상 이렇게 되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4년 인사실 주관으로 8개월간의 TFT 수행을 통해 향후 2020년까지 회사의 전환 계획(Transition Plan)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외 현장 외국인 직원 비율 70% 달성, 해외 현장 전체 책임자 중 외국인 책임자 20% 확보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사업본부별로 세분화된 목표를 정해 인사 운영을 꺾고 있으며 외국인 인사관리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부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관리자금 직원 채용 시에도 한국인 위주로 검토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을 통해 최적의 인원을 선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인을 보조하거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현장의 관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20년까지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수 외국인들의 영입과 책임자 선발은 물론, 이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외국인들의 교육체계 강화, 보상 및 승진 제도 구축, 영문 시스템 및 문서화 등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다국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인 중심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내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모색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캠페인을 통한 점진적 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신규 수주 현장에 대한 외국인 직원 및 책임자 의무 비율 적용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다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는 아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전의식이 샘솟는다. 현대건설이 다국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글로벌 탈런트 프로그램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기 위한 현대건설의 날갯짓에 글로벌 탈런트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다.



변화를 이끄는 긍정의 바람

워크스마트 캠페인

총무실 총무팀
이규현 과장



고객최우선



인재존중

2014년부터 총무팀을 중심으로 워크스마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캠페인인 동시에 현대건설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워크스마트 하면 그 개념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곤 한다. 스마트워크와 혼동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스마트워크는 IT기기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뜻한다. 반면, 워크스마트는 업무상 비효율적인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절차, 관행 등을 없애 일하는 시간은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말 그대로 똑똑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워크스마트가 등장한 것은 사회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열심히 오래 일하는 이른바 하드워크(Hard Work)만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고 회사생활만큼이나 가정생활도 중요하기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바꾸려 노력하게 되었다.

첫해에는 회의문화 개선, 문서작성 간소화, 업무지시 명확화, 보고 및 결재 효율화, 협업마인드 제고 등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선정한 5대 과제를 포스터,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렸다면 이듬해에는 자체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 현대건설만의 5대 과제를 도출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업무지시 명확화, 보고 및 결재 효율화, 업무 집중, 회의문화 개선, 퇴근문화 개선을 골자로 PC 화면보호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시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업무지시 및 보고 메모지나 회의진행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 것은 실효성이 낮았으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근무시간 운영, 퇴근시간 후에도 눈치 보며 자리를 지키는 관행을 없애고 퇴근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업무마감 스탠딩 미팅은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으며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2016년에는 워크스마트 홍보 영상을 통해 2015년 선정한 5대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고, 기존의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팀장급 독려 활동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 본사와 현장 간 협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대와 부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변화에는 끝이 없다. 워크스마트 홍보 영상에 다윈의 이런 문구가 나온다. “살아남은 종은 강한 종도, 우수한 종도 아니다. 변화한 종만이 살아남는다.” 상황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더욱 발전할 현대건설을 위해 오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완전한 안전, 그 이상을 향해

세이프티 모먼트 Safety Moment

안전관리실 안전기획팀
차봉율 과장

산업 발전과 더불어 성장을 거듭해온 현대 문명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에 대한 부담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후유증의 하나로 안전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해 종종 대형 재해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은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새로운 안전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왔고 2015년부터는 세이프티 모먼트(Safety Moment)를 실시하게 됐다. 세이프티 모먼트는 회의 시작 전에 지정된 사람이 안전을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과 시사점과 교훈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이나 내용의 제한은 없다. 안전에 대한 법규나 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사고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다. 혹은 사회적인 안전 이슈를 공유하거나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해도 된다.

시행 초기에는 국내외 현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주당 평균 0.74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최소 주당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진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실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본사와 현장에서는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공유해 현재는 많은 회의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고객최우선



글로벌 지향

SAFETY MOMENT 99와 100의 차이

일반적인 의미

////////////////

두 자릿수
좋은 성적(점)
미완성(%)

99

“1”

세 자릿수
1등
완성

100

안전에서의 의미

////////////////

교육
/
훈련

Golden
Time

안전

인상 깊은 사례로는 1:29:300의 법칙인 ‘하인리히 법칙’이다. 한 번의 큰 재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무려 300번의 징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이프티 모먼트 실행으로 이제는 하인리히 법칙을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많은 임직원이 세이프티 모먼트를 통해 우리나라 역대 최고 규모인 경주 지진에 대해 알게 됐을 뿐 아니라 대피요령 등을 배우며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킨 것도 기억에 남는다.

대다수의 건설 현장 재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안전수칙 지키기는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안전에 대한 회의만 느끼게 할 뿐이다. 즉,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안전은 문화다. 안전문화란 안전최우선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 체화된 상태를 말한다. 안전의식이 결여된 안전문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성숙한 안전의식의 힘을 바탕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안전이 생활화, 체질화될 때 비로소 안전한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세이프티 모먼트는 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공유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이프티 모먼트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현대건설을 완성하는
성공의 DNA

H-POWER

무엇이 현대건설의 DNA를 만드는가?
현대건설의 오늘이 있기까지 거처온
역동적인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불어 현대건설만이 창출할 수 있었던
기술혁신, 인재경영, 독보적인
하이 퀄리티의 기원을 되짚어보는 시간.
70년 역사와 전통을 완성하는 현대건설의 어제와
진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미래 마스터플랜을 조망해본다.

현대건설 70년 역사 회고 좌담회

참석자

이춘림 회장
 김광명 회장(토목)
 박영욱 회장(관리)
 박찬규 회장(건축)
 안성환 회장(건축)
 지주현 회장(전기)
 최동식 회장(해외 업무)
 현승기 회장(플랜트)

일시: 2016년 12월 19일

장소: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탑클라우드52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건설 만형으로서의
 우직한 무게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는 현대건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서 위용을 떨치고 있는 현대건설의 힘은
 그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드는 그들만의 고유한 도전정신에 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온
 현대건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Q |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여덟 분을 모셨습니다. 현대건설은 1947년 창립 이후 1950~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중심에서 한국의 발전을 이끈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 상황과 현대건설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림 회장 우리나라의 1950~60년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복원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가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광화문 앞에 서면 동대문이 흰히 보일 만큼 서울은 아직 전후 복구가 되지 않았고 도심이라 해도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은 파괴된 철도나 항만, 도로 등을 재건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영욱 회장 그러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 4·19혁명이나 5·16군사정변 같은 굵직한 사건이 많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도 컸어요. 그래도 현대건설은 미군공병단 같은 주한미군 부대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는 자연스레 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공사는 계약서나 도면, 공사 진행 등이 모두 영어로 진행됐으니까요. 해외 공사나 다름없었죠.



이춘림 회장



김광명 회장



박영욱 회장

1950년대에는 광화문 앞에 서면 동대문이 흰히 보일 만큼 서울은 아직 전후 복구가 되지 않았고 도심이라 해도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춘림 회장



박찬규 회장



안성환 회장

Q | 실제로 1960년대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 현대건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이 해외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최동식 회장 사실 현대건설은 해외 공사를 하기 위해 태어난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위상을 확보한 현대건설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의 전략은 최단기간 내 최소의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었죠.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김광명 회장 물론 해외 진출이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첫 도전이었던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의 경우 수익 측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험하고 해외 공사에 대한 기술력이 한층 높아지면서 향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박찬규 회장 잘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은 본래 토목 중심의 회사였어요. 1970년대 초반부터 건축 부문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고 완공하기에 토목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현대건설의 주력 사업은 건축으로 변화했고 탄탄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Q | 현대건설이 지나온 70년이라는 시간이 늘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일쇼크, IMF 등 전 세계를 휘청거리게 한 위험들 앞에서 현대건설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춘림 회장 1970년대 오일쇼크는 이제 막 해외시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려던 현대건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적자를 면치 못했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 다 해외 공사는 이제 접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故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달랐습니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이 있는 나라로 가서 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박영욱 회장 세계의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렸거든요. 중동 국가들은 돈이 생기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진행했고, 현대건설도 여기에 뛰어든 거죠. 그중 1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세계적인 건설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전혀 없던 나라였는데 현대건설이 진출한 후에
영사관이 생기기도 하고 국교수립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건설인들이 민간 외교관인 셈이죠.



지주현 회장

Q | 현대건설 근무 당시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사업은 무엇인가요.

최동식 회장 파푸아뉴기니 지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네요. 당시는 오일쇼크 때문에 내부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故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의견에 따라 참여하게 됐고,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김광명 회장 중동 진출 초기에 10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도로, 남강·소양강 수문댐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 톤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5만 톤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Q | 현대건설 하면 사실 **故 정주영 명예회장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기에 회장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춘림 회장 “해봤어?” **故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이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와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지고 임하신 분이니 못 해내는 일이 없으셨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으셨지만, <명심보감>과 다양한 인물의 위인전을 탐독해 그 누구보다 아는 것 많고 지혜로운 리더셨습니다.

김광명 회장 부지런함과 꼼꼼함은 진짜 타고나신 듯했어요. 수많은 해외 현장을 둘러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어느 부분 하나 놓치는 법이 없으셨거든요. 특히 해외 현장을 방문할 때면 현장 감독이나 프로젝트 관리자들까지 직접 만나 챙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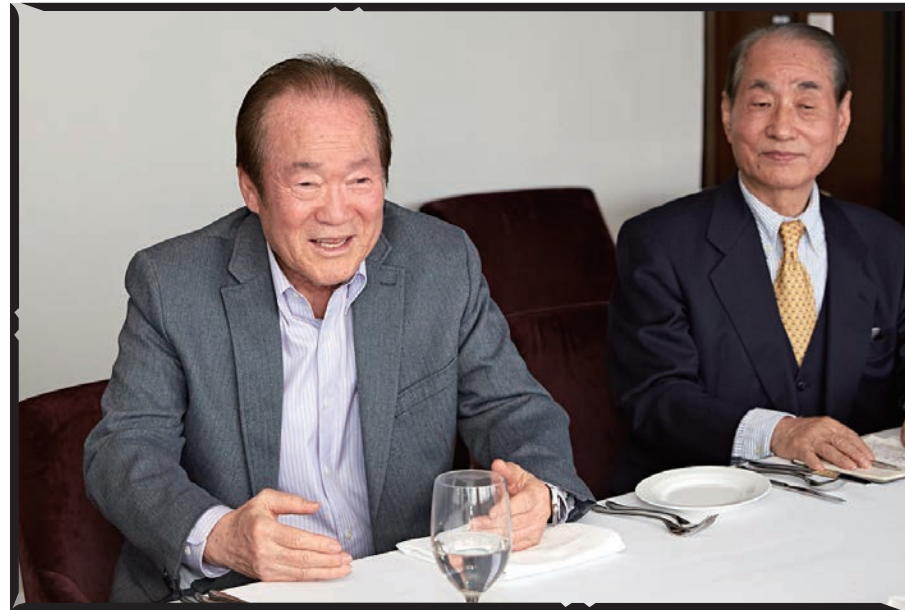
Q | 현대건설은 ‘도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특유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인’이라는 자부심도 크고요. 과거 현대건설의 기업문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주현 회장 현대건설 하면 청렴과 끈기, 그리고 개척정신이 기본이죠. ‘건설업에서 자란 인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던 **故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말씀처럼 현대건설인들 또한 투철한 도전정신과 긍정의 마인드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문화가 몸에 배서 그런지, 현대건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박찬규 회장 덧붙여 말한다면, 현대건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탄탄한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인재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겁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기업문화는 지금까지도 자랑스럽습니다.

Q | 저유가에 따른 해외 건설 경기부진과 국내 건설 경기침체 등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행보가 유독 돋보이고 있습니다. 내실 경영과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건설증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려면 어떠한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회장 단순 시공으로 건설업의 승부를 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고부가가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해외의 선진 건설사들이 아직까지 견제한 이유는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EPCM(설계·구매·시공·운영)’ 능력을 키웠기 때문



최동식 회장



현승기 회장

파푸아뉴기니 지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입찰 당시
오일 쇼크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목숨 걸고 매달렸죠.

이거든요. 지금 현대건설도 품질혁신을 통한 고품질 프로젝트들로 국내외 신임이 두터운 만큼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는 날도 머지않았다 생각합니다.

김광명 회장 기업이라는 배가 제대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키를 쥔 선장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의 실적이나 행보로 볼 때 현재 정수현 사장과 경영진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심분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특히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이후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룹 시너지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니 현대건설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안성환 회장 건설업계의 화두는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건축이나 토목,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뿐 아니라 도로와 자동차, 건축물과 전자기술 등 융·복합 분야 모두가 건설의 몫이니까요. 현대건설은 이미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 등을 통해 그 어떤 곳보다도 한발 앞서고 있지만 말입니다.

Q | 마지막으로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귀한 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림 회장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언어, 종교, 풍토가 다른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많은 후배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또한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새로운 곳들을 개척해나가는 걸 보면 현대건설인만이 가진 도전정신이란 DNA가 유유히 이어지고 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현대건설 특유의 인내심, 투지, 추진력으로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모습을 기대합니다.

안성환 회장 해외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와 교류가 없던 지역의 경우,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에 영사관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오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교수립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바로 민간 외교관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문화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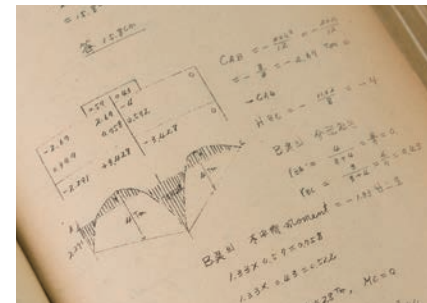
원로들이 전하는 현대건설, 그때 그랬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고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그 주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건재하는 현대건설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당시엔 중요한 기준이며 문화였고,
이제는 소중한 역사가 된 그 시절
이야기들.

01

취준생 선호도 1위 기업

1958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박영욱 회장에 따르면,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건설업에 매진하던 시기여서
건설회사들의 인기가 참 좋았다.
그런 까닭에 청년들의 취업 1순위가 건설회사였고
그중에서도 현대건설은 소위 '엘리트' 아니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입사 경쟁이 치열했다고.
당시 현대건설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전공과
영어는 물론이고, 근무자의 자세, 눈술 평가 등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임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을 수밖에.



1963년 사우지 〈現代〉에 실린

토목 과목 입사시험 답안

현대건설 입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높은 전문성을 요구했던 회사의 방침을
모두 엿볼 수 있다.

02

무교동에선 우리가 제일 잘나가

1961년 현대건설이 무교동에 지은 첫 사옥은
당시로는 손꼽힐 정도의 고층 건물이자 최신
건물이었다. 1960년대 공채 3기로 입사한 지주현
회장에 따르면 무교동은 현대건설 임직원들로
인해 서울에서 가장 주목 받는 변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또한, 무교동 어딜 가나
현대건설 직원이라 하면 반갑게 맞아주었던다.
현대건설인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이 활기차지는 건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

03

마냥 즐거웠던 환율 폭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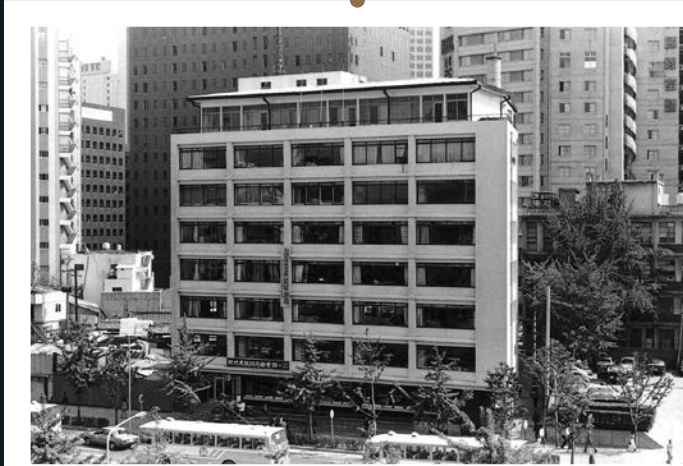
1970년대는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큰 입찰을
따내기 시작한 현대건설의 호시절. 이에 상응해
달리는 썰매만 갔다. 오죽하면 국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에서 달러 수급을 나눠서 하라 했을까.
더욱이 그때는 환율이 자고 나면 오르던 시기라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일에만 매달리느라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치킨 한 마리 사서 퇴근하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기쁘기만 했다고.
이런 환율 폭격이면 언제든 환영이다.

무교동에서 계동까지

현대건설의 발자취를 따라

사옥(社屋)은 '회사가 위치한 건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 임직원들을 한데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표하는 건물로 홍보 효과를 겸한다. 또한 기업의 역사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점으로 자리한다. 현대건설은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오늘의 계동 시대를 열었다. 그 발자취를 살펴본다.

1961



무교동사옥

현대건설의 위상을 공표하다

- 창사 14년 만의 첫 사옥, 당시로서는 손꼽힐 정도의 최신 설비를 갖춘 고층 건물
- 위치: 서울 중구 무교동 92번지
- 규모: 약 3008m²(연건평 910평), 지하 1층, 지상 7층

1976



세종로사옥

발전을 거듭하다

- 무교동 시대의 막을 내리고 15년 만에 세종로 사옥으로 이전
- 위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번지
- 규모: 연면적 약 2만 3977m²(7253평), 지하 4층, 지상 16층

1983

계동사옥 본관

새로운 시대를 열다

- 사업 팽창으로 인해 이전, 외부를 화강암 석재로 마감해 서울을 대표하는 석조건물로 자리매김
- 위치: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 규모: 본관 연면적 약 6만 6115m²(2만 평), 지하 3층, 지상 12층

2014



新계동사옥 시대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심점이 되다

- 업무 효율과 임직원의 편의를 배려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 위치: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 규모: 연면적 약 13만 5000m²(4만 평)

달라진 新계동사옥 이모저모

新계동사옥은 진화하는 현대건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척도다. 사무 공간은 확 밝아졌으며 직원들의 편의시설에는 배려가 더해졌다.

지하 1층에 마련된 'Culture Lounge'는 오직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휴식은 물론, 친목 모임, 캐주얼 미팅, 간편식 취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림질이나 바느질, 간단한 세탁을 통해 옷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Self Cleaning Room', 안마 의자가 배치된 'Cozy Room', 커피를 무료로 즐기며 책과 잡지를 볼 수 있는 'Canteen', 캐주얼 미팅이 가능한 '단체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과 5층은 회의 공간이다. 캐주얼 미팅을 위한 'Meeting Lounge'와 'Frontier Lounge'를 비롯해 6인실, 8인실, 10인실, 12인실, 17인실 등 목적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VIP 접견실과 회의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한편, 지상 5층부터 10층, 15층은 사무 공간이다. 화이트, 그레이, 그린 컬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책상은 전체 분위기를 산뜻하게 연출하며 파티션 높이를 낮춰 임직원 간의 활발한 소통이 가능해졌다.

달라진 사무실 풍속도

오픈 그린 오피스

좁고 답답했던 책상은 화사한 색상에 너비까지 넓어져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업무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숨 가쁘지만 산뜻하고 널찍한 사무실 덕분에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다.

점심시간의 자유

점심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하 1층 간편식 식당에는 햄버거, 샌드위치부터 테이크아웃 도시락까지 임직원들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다. 가격은 구내식당과 동일한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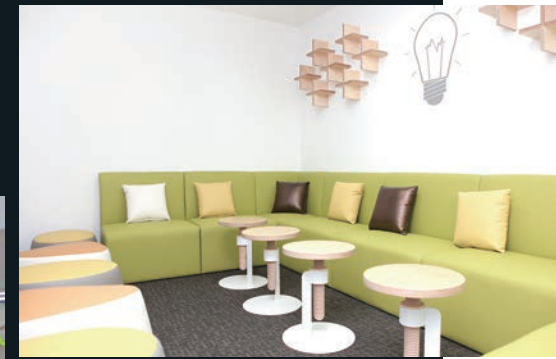
휴게실에서 진짜 휴식을

자판기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서 이야기하는 풍경은 옛말. 이제는 각 층마다 자리한 휴게실에 편안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자유 복장으로 변신

1990년대 초반까지 여직원들은 근무복이라 불리는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매년 새로운 근무복을 지급했는데 여직원들의 까다로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품평회까지 진행할 정도였다. 당시 사보에는 똑같은 유니폼으로 남다른 맵시를 뽐내는 비결에 관한 기사도 자주 등장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근무 연수와 치마 길이가 반비례했다는 후문. 현재는 남녀 직원 모두 자유 복장으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OFFICE



C와 비전 슬로건에도 변화의 물결

지난 2011년 4월, 기업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자산 관리를 위해 현대건설 CI(Corporate Identity)와 비전 슬로건 디자인을 새단장했다. 개정된 C는 기존에 두 서체를 혼용한 영문 로고 타입을 하나의 서체로 통일하는 한편, 국문 로고 타입도 영문과의 통일성을 위해 여백과 자간을 조정해 긴장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건설 C에 사용하던 기존 블루 색상을 희망, 가능성, 신뢰의 상징인 현대자동차그룹 'HYUNDAI Blue'로 일원화해 그룹 가족임을 담았다. 비전 슬로건은 서체 및 색상을 통일해 C와의 동시 사용 혹은 슬로건 단독 사용 시 간결하고 명확한 기업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NEW

경 영 의
최 우 선 목 표

안전 경영

‘생산(生産)’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업은 가장 큰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시간제약, 공간제한적인 건설 현장에는 그 어떤 산업 현장보다 많은 인력과 자재, 중장비가 투입되며, 그만큼 많은 안전사고의 리스크가 상존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비롯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배제 즉, 안전경영의 확립은 건설업의 지속발전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건설은 ‘안전경영’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놓고, 체계적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층이 선도하고 임직원이 실천하는 철두철미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안전관리로 안전문화 정착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안전장구를 허술하게 착용하거나 작업도구와 자재가 질서 없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과 안전의식이 일상 작업에 깊숙하게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직원의 안전체질화’라는 현대건설의 모토에서 비롯한 것이다.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모든 작업자가 모두 안전의 주체로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며, 공정을 주도한다. 여기에 안전팀의 점검과 사고예방 활동이 더해져 현대건설 특유의 안전문화가 완성된다. 실제로 현대

건설은 매년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국내외 전 사업장에 걸쳐 1691회 실시했던 안전점검 횟수는 이듬해 3833회, 2016년에는 3620회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경영층의 참여 아래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세심한 안전진단과 함께 전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과 무재해 달성 의지를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분기별로 시행하는 ‘안전점검회의’에서는 현대건설 안전경영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 전사의 안전 실적 분석과 대책 수립, 사업본부별 중점 추진계획의 공유를 통해 경영층 중심의 안전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에 첫 도입한 ‘경영층 안전리더십 교육’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2016년까지 두 해에 걸쳐 실시됐으며 대표이사 및 본사 임원진 등이 참석해 강력한 안전경영 리더십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SAFETY

체계적 시스템은 안전경영의 기둥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임직원의 실천은 안전경영의 중요한 전제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필요충분조건을 갖출 수는 없다.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 조직과 협력사에 침투시킬 수 있는 치밀한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대건설은 매월 전 협력사 사장단과 함께 노사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마다 모범 근로자 및 우수 협력사에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 안전문화 실천의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고 있다.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과 꼼꼼한 건강 컨디션 체크는 기본 중의 기본.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는 현대건설

의 강력한 사전재해예방 시스템이다. 현대건설의 모든 현장은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작업에 임할 수 있다. 승인을 받고 작업이 시작된 후에도 작업허가서에 수립된 계획대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작업 중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전공종)은 담당기사, 공사팀장, 안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건설은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산출된 위험성평가 등의 정보가 작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별 OPS(One Page Sheet)에 기재하고 일일 지적활동(Tool Box Meeting)에 반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우수 협력사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 감면, 저가심의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우수 협력사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반면 '안전수칙위반제도'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협력사와 작업자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페널티 제도다. 위반의 횟수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에서 아웃까지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인 벌칙이 수반되는데, 적발 즉시 그 자리에서 결과를 통보받는다. 고소 작업 중에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장비를 운전하는 등 심각한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바로 현장 작업에서 배제되는 '아웃'을 적용하기도 한다.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도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대건설이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모바일HSE'는 안전경영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안전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발견자는 즉시 모바일HSE로 사진과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보고와 실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 조치에 따르는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됐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요소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임직원에게 보낸 정수현 사장의 안전 메시지

2015년 6월 29일의 편지

“차선(次善)은 최선(最善)의 반대말입니다”

오늘은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6년 6월 29일도 오늘처럼 일상과 다름없는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건너편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지상 5층부터 지하 4층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데는 겨우 20초가 걸렸을 뿐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재(人災)로 인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안전불감증도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못했다고 통탄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하나뿐이고 전부입니다. 20초가 아니라, 1초 만에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에는 차선(次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선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면 최선(最善)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행한다는 뜻입니다. 무실(務實)에서 '실(實)'은 진실·성실,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려면 먼저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따금씩 현장에서 사건사고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으페하다, 결국 실기해서 문제가 겹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삼풍 사고 당일, 건축 구조설계기술자가 보강 조치만 하면 건물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현상을 덮고 감언이 설하지 않았다면, 날카롭게 현장을 직시하고 조연했다면 그런 국가적 재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대건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만 역할을 제대로 해도 회사,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설 재해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년 전의 뼈아픈 사고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를 재점검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분명히 큰 결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2일의 편지

“안전 매뉴얼은 종이문서가 아닙니다”

1주일간 지하철 안전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지하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꽃다운 청년이 목숨을 잃어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하더니, 어제 6월 첫날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로 건설인부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마치 우리 일인 것처럼 마음을 졸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언론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저가 수주, 무리한 공사일정,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미흡 등을 고질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고에는 보다 더 치명적인 공통의 원인이 하나 있어 보입니다. '매뉴얼 따로, 실행 따로'가 그것입니다. 스크린도어 업체에는 2인1조로 일하라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지하나 밀폐 공간에서의 공사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송배기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칙만 갖췄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공사 현장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뉴얼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점검해나가야 하고, 한 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 안전해집니다. 평상시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만 성실하게 실행한다면 사고가 터지는 찰나의 시간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2016년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와 대기 오염에 몸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십시오.

From, 현대건설 사장

정수현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 '무재해 건설'을 향한 도전

2015년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했다. 특히 같은 해 상반기에만 총 6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체계적인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는 2015년 국내 현장 중대재해 '제로' 달성, 일반 안전사고 50%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함께 안전한 내일을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대건설 12대 안전규범(HDEC 12 Safety Golden Rules)'을 제정하고 더욱 의욕적인 안전경영 활동에 나선 2016년도에는 국내 및 해외 전 현장 재해율(LTIR: Lost Time Incident Rate) 0.060%를 달성했다. 현대건설의 중장기 안전경영 전략은 2018년까지 0.047%를 기록, 2014년 대비 40% 감소가 목표다.

한편, 2017년에는 '안전관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뉜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는 점검활동, 신규와 정기 및 특별교육활동, 잇차사고 사례를 등록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제언하는 정보활동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모바일HSE와 현대건설 현장관리 시스템(HPMS)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해율을 중심으로 한 사후 평가에서 사전예방활동 중심의 평가지표로 측정과 관리의 방향을 전환했다. 향후 현대건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IoT 기법 도입을 통한 현장관리,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한 사고발생 패턴분석 및 안전관리 전략수립 등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아시아 스퀘어타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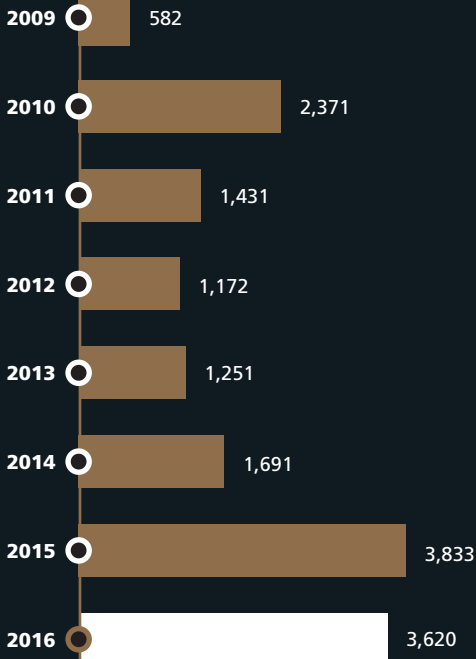
무재해 달성 실적

현대건설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함양과 무재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위 : 현장수)

구분	2배	3배	5배	10배	20배	30배	전공정
2010	14	12	6	2	2	0	19
2011	14	10	6	2	1	1	23
2012	8	4	7	0	0	0	17
2013	11	2	3	4	0	0	14
2014	3	2	2	1	0	0	8
2015	4	3	4	4	1	0	9
2016	5	1	1	2	0	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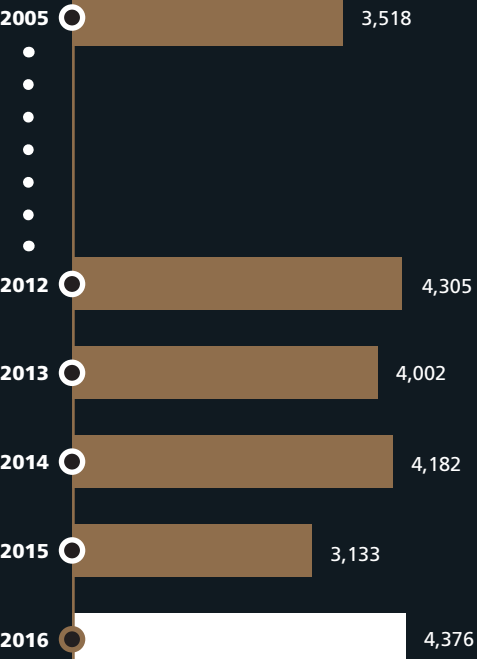
안전점검 추진 실적

현대건설은 지원, 평가, 특별, 파트를 형태로 현장의 안전시설 및 안전보건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단위 : 횟수)



안전교육 추진 실적

현대건설은 전 임직원에게 안전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 현장 근로자 및 협력사 직원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단위 : 명)



신뢰의 완성

품질경영

건설업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순간 성립되는 이른바 수주산업이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을 상대해야 하며, 모든 생산 대상이 고유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갖는 주문생산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건설의 품질은 여타의 산업처럼 단지 완성된 결과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건설업은 엔지니어링과 구매, 시공 등 EPC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이며,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이 품질의 고저(高低)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품질혁신을 통해 신뢰를 생산하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품질은 제품의 근본적 경쟁력인 동시에 고객의 안전과 감성적 만족에 직결되는 요소이며 우리의 자존심이자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한다. 또한 “품질만 큼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나 특히 인류의 역사와 삶을 일구는 건설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언어와 문화가 각기 다른 세계의 건설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품질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건설업에서의 품질은 하드웨어인 토목과 건축 구조물의 완성도는 물론 엔지니어링(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 측면에서의 품질이 모두 수반돼야 한다. 故 정주영 명예회장은 건설업 영위 과정에서 도달해야 하는 모든 품질의 총체를 ‘신뢰’라는 한 마디의 말로 정리했고, 신뢰는 70년 역사를 통해 이어온 현대건설의 대표적인 DNA로 내재화됐다. 현대건설은 1993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ISO 9001 국제 품질경영 시스템을 취득해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기계학회(ASME)의 원자력 품질보증 NA/NPT 인증과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MN/SN/EN/MH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EPC 전 공정에 걸쳐 구축된 완벽한 품질관리 및 보증 시스템을 국내외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QUALITY



건설업의 전개 과정에서 수반되는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품질 혁신 기반을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IT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기반 Lessons Learned 정보 시스템을 상호소통의 채널로 활용, 현장 중심의 품질 개선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업계 최초로 현장 '품질평가제도(PQI)'를 도입했다. 품질평가제도는 국내외 전 현장의 품질 수준을 지수화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시공 협력사 품질 책임자들의 공통된 이해를 얻기 위한 품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재 협력사 및 TPA(Third Party Agency) 사이에 긴밀한 품질 체인을 구축, 구매 자재의 품질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품질능력 인증

70년 역사를 통해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종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우리나라 건설업의 눈부신 발전을 선두에서 견인해왔다. 현대건설이 지금껏 거둔 모든 성

과는 고객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투철한 품질 혁신의 의지가 깔려 있다. 현대건설의 품질은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 이상의 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전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품질평가를 실시, 발주처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규 개설된 현장에는 품질 전문가를 파견해 표준화된 품질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근본주의적 품질 혁신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구성된 온라인 품질교육은 전사적 품질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한 현대건설의 이 같은 노력은 국내외 눈부신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6년 싱가포르 건설부(BCA)가

주관한 'BCA 건설대상 2016'에서 국내 건설사로서는 처음으로 품질 우수 부문(QEA) 대상을 수상했다. 싱가포르 건설대상은 1986년부터 싱가포르 건설부가 매년 현지에서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프로젝트를 평가해 품질·시공·디자인·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해 수여하는 건설 관련 최고 권위의 상. 현대건설은 품질 우수 부문 대상, 우수 건설 현장 부문(CEA) 최우수상 등 2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또 국내 건설사로서는 유일하게 2013년과 2014년 품질 우수 부문 최우수상(Gold Plus)에 이어 2016년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는 '2016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조사에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아파트 부문 1위에 올랐다. 이는 현대건설이 정부나 기업고객뿐 아니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의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건설 고객센터는 '고객 문의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고객 불

편 최소화'를 기치로 분양·계약·공사·하자보수·일반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감동경영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품질경영 인증서 취득 현황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 많은 나라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해 글로벌 경쟁력의 지표로 활용한다.

-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영문)
– 최초 취득일: 1993년 7월 1일
-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국문)
– 최초 취득일: 2005년 6월 21일
-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싱가포르)
– 최초 취득일: 2005년 7월 1일

ASME 원자력 시공

미국기계학회(ASME)는 원전 관련 세계적인 공인기관이다. 발전소의 시공, 발전소용 설비의 재료,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의 품질보증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건설은 'NA(원자력품목의 설치에 관한 인증)'와 'NPT(원자력 부속품 및 부품 제조에 대한 인증)'를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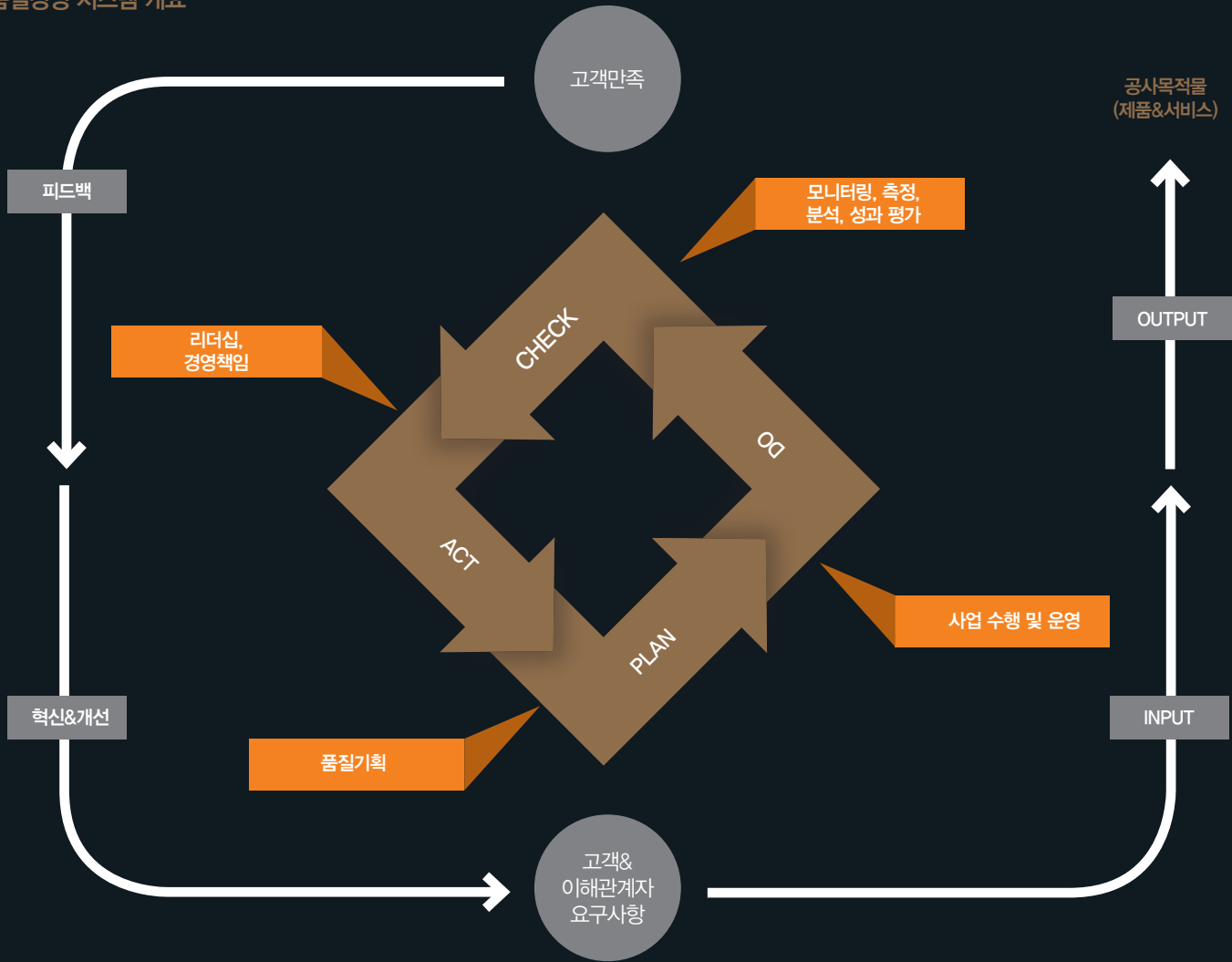
- ASME NA
– 최초 취득일: 1982년 5월 23일
- ASME NPT
– 최초 취득일: 1982년 5월 25일

KEPIC 원자력 시공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은 대한전기협회가 원전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 신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운전, 검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기술표준으로 현대건설은 기계(MN), 구조(SN), 전기 및 계측제어(EN), 공조기기(MH) 등에서 인증을 받았다.

- KEPIC MN
– 최초 취득일: 1998년 12월 21일
- KEPIC SN
– 최초 취득일: 1998년 12월 21일
- KEPIC EN
– 최초 취득일: 1998년 12월 21일
- KEPIC MH
– 최초 취득일: 1998년 12월 21일

품질경영 시스템 개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현대건설의 R&D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A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자신의 저서 <건축을 향하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처럼 건축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계와 같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건설기술,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과 시너지를 살펴보면 르 코르뷔지에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말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건설기술 변화의 선두에는 언제나 현대건설이 있다.

기술력이 곧 경쟁력, 오늘도 계속되는 현대건설의 연구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오늘날의 건축은 실제로 기계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변화다.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발전은 언제 어디서든 집 안의 전등과 가전제품은 물론 보일러와 도시가스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자유롭게 제어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R&D가 집을 변화시키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건설은 초고층 건물, 초장대교량, 장대터널, 스마트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그린스마트빌딩, 자원순환형 고성능 건설재료, 수처리 플랜트, 오염토 복원, 발전 플랜트, 원전 건설 및 해체 등 환경·에너지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건설의 지평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미래 핵심 기술 확보와 신시장 진출을 위해 북미 5개,

유럽 11개, 아시아·태평양 5개 등 총 21개 해외기관과 국제 공동연구 및 연계개발(C&D: Connect & Development)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싱가포르 최고의 이공계 명문대학인 난양공과대학(NT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 공동연구소를 개소했다. NTU와의 공동연구소 개설은 현대건설의 R&D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대건설은 난양공과대학교와 함께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주관하는 5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3년간 수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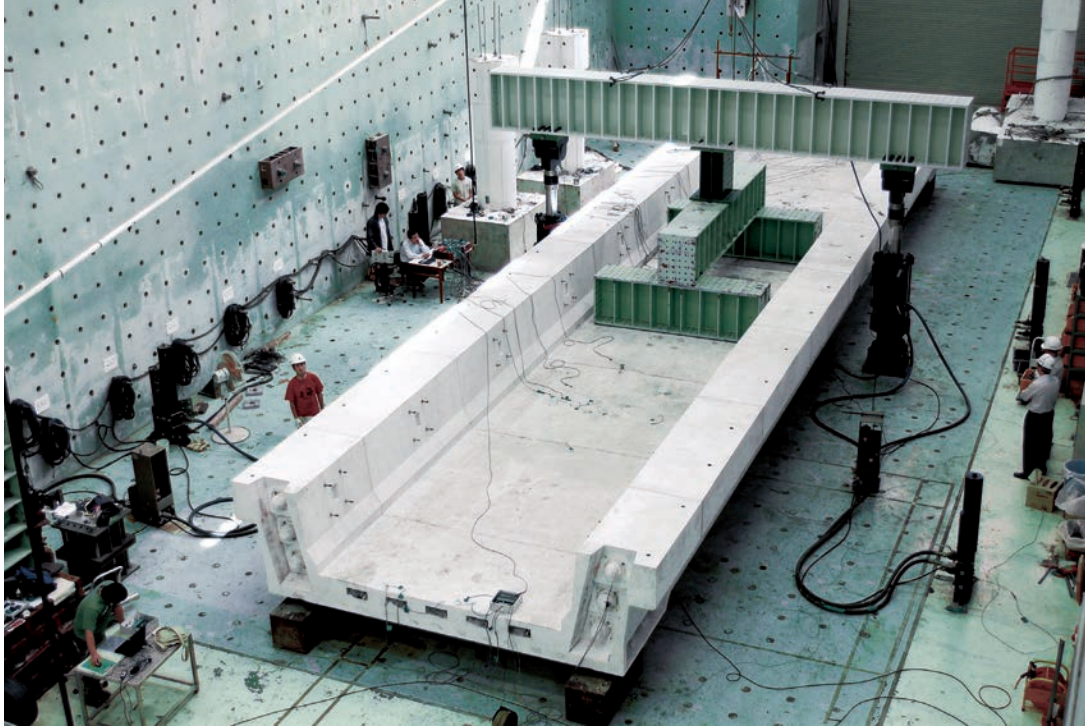
이외에도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산하 JTC(Jurong Town Corporation)와 오염토양 복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NTNU)와 터널굴착공법(TBM: Tunnel Boring Machine) 공동연구 등 다수의 R&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지속적인 R&D 교류를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R&D 역량의 확충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모든 기업의 공통된 화두다. 현재를 넘어 미래의 시장을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선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R&D 패러다임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개발본부는 그 첨병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 편입과 함께 기술연구소를 연구개발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기술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왔다. 2016년에는 연구개발 인력 투자액 183억 원, 연구개발비 39억 원, 연구개발 자산 취득 4억 원 등 총 226억 원을 R&D 인프라 강화에 투자했다. 특히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홈&카, 고강도 건축구조용 강재 개발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총 20건의 협력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신사업 발굴 협의체, 분석기술 교류회, 해석기술교류회, 로봇기술협의체 등 그룹 간 협의체 및 그룹 R&D 전략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다양한 공동연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층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한 종합 디벨로퍼로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을 생각이다.



대형 구조실험실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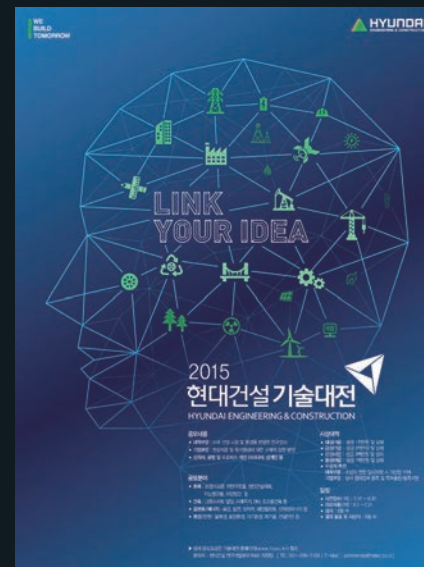
현대건설 기술대전과 기술컨퍼런스, 미래 건설의 트렌드를 주도하다

현대건설은 매년 대학(원)생과 중소기업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대건설 기술대전'을 실시, 건설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건설사 유일의 자체 기술경진대회로 대학(원)생 발굴 및 육성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협력사 기술 공유를 통해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현대건설 기술경진대회라는 명칭으로 최초 개최된 이래 2016년까지 120여 건의 수상작을 배출했다. 2016년에는 총 148건의 기술이 접수됐으며, 이 중 '신소재', '공법 및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 '미래 건설 시장 및 환경 반영 연구결과', '현장 적용 및 원가절감 실현 가능 기술(중소기업)' 등 12건이 입상했다.

현대건설은 건설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건설기술 학술 발표회로 건설의 미래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기술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2008년 현대건설 기술대전 제정 당시 지금의 기술대전의 전신인 '기술경진대회'와 기술컨퍼런스의 전신인 '연구성과발표회'를 함께 진행했으나, 2015년 이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행사로 분리했다. 2016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건설, 물&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테마를 중심으로, Grupo ACS 등 다양한 글로벌 선진사,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건설 기술대전

구 분	기술대전(前 기술경진대회)	기술컨퍼런스(前 연구성과발표회)
목적	-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 및 협력사 기술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 -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신기술 교류 및 신규사업 발굴 - 미래 건설산업 변화에 따른 신시장 진출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
프로그램	기술 아이디어 공모	- 연구개발본부 성과발표 - 선진 기술동향 세미나



현대건설 기술대전 역대 개최 현황

현대건설 기술경진대회	16건 입상 (149건 접수)	2008	대학생, 협력사 부문 분리 개최 • 대학생 기술경진 토목 : 에너지절감형 토목구조물, 초고층 적용 신재생디자인, 첨단미래주택 • 중소기업(건축 부문) 기술경진 원가절감 가능 신기술/신공법, 현장 프로세스 개선 방안, 현업 적용 기술(추가 연구 필요 기술 포함)
	11건 입상 (111건 접수)	2009	기업 부문만 개최 • 중소기업(건축 부문) 기술경진 원가절감 가능 신기술/신공법, 현장 프로세스 개선 방안, 현업 적용 기술(추가 연구 필요 기술 포함)
현대건설그룹 한국경제 기술대상	14건 입상 (122건 접수)	2010	현대건설 계열사(HDEC, HEC, 현대종합설계) 한국경제 공동주최/공모전과 기술세미나 통합 • 대학생/협력사 기술경진 [대학생] 그린홈/그린빌딩, Ubiquitous IT, 석탄가스화, 신재생에너지, 원전, 하수재이용/담수화, 바이오가스, 초장대교량, 초고층 빌딩, 친환경 신소재 등 [중소기업] 원가절감 가능 신기술/신공법, 현장 프로세스 개선 방안, 현업 적용 기술(추가 연구 필요 기술 포함) • 기술세미나(연구성과발표)
현대건설 기술경진대회	15건 입상 (131건 접수)	2011	중소기업 부문만 개최/수상작 발표 추가 • 중소기업 기술경진 현장 적용 가능 자재 및 신기술/신공법, 공동연구 개발 가능 아이디어(미래 유망산업) • 수상작 발표(대상)
현대건설 기술대전	13건 입상 (111건 접수)	2012	현대건설 기술대전 공식 명칭화 • 대학생/중소기업 기술경진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관련 아이디어, 신기술/신공법(첨단 그린도시, 청정/신재생에너지, 물환경, 신공간창출), 건설산업 분야의 신기술, 신사업 모델 개척을 위한 창조적 논문/아이디어, 원가절감 가능한 신자재/신공법, 현장 프로세스 개선방안, 저탄소 녹색성장기술 등 • 연구성과발표회
	12건 입상 (88건 접수)	2013	해외초청강연 추가 • 대학생/중소기업 기술공모전 [대학생] 공모 분야의 미래 시장 니즈를 반영한 아이디어 및 연구결과(토목, 건축, 플랜트, 환경) [중소기업] 원가경쟁력 확보 가능한 신자재/신공법, 건설 현장 시공관리 프로세스 개선, 기타 건설산업 분야의 혁신기술 • 해외초청강연 및 기술세미나
	12건 입상 (148건 접수)	2014	후속조치로 수상업체 기술설명회 시행 • 대학생/중소기업 기술공모전 [대학생] 공모 분야의 미래 시장 니즈를 반영한 아이디어 및 연구결과(토목, 건축, 플랜트, 환경) [중소기업] 원가경쟁력 확보 가능한 신자재/신공법, 건설 현장 시공관리 프로세스 개선, 기타 건설산업 분야의 혁신기술 • 해외초청강연 및 기술세미나 • 수상업체 기술설명회(후속조치)
	12건 입상 (145건 접수)	2015	기술공모전과 기술세미나 참석자 성격 상이로 분리 개최(기술세미나 → 기술컨퍼런스 확대 별도 개최)/과년도 수상자 현대건설 근무 소감 추가 • 대학생/중소기업 기술공모전 토목, 건축, 플랜트/에너지, 환경/안전 분야 대상, 미래 건설 시장 및 환경 반영 연구결과, 현장 적용 및 원가절감 구체적 실현 방안, 신자재, 공법 및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 설계안 등 • 과년도 수상자 현대건설 근무 소감·수상작 발표(대상, 금상)
	12건 입상 (148건 접수)	2016	기업 부문 협력사 부문 포함/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 발표/기술컨퍼런스 별도 개최 • 대학생 및 중소기업 기술공모전 토목, 건축, 플랜트/에너지, 환경/안전, 기타(IoT) 분야 [대학생] 신자재, 공법 및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 설계안, 미래 건설 시장 및 환경 반영 연구결과 [중소기업] 현장 적용 및 원가절감 실현 가능 기술 [협력사] 당사 현장 실제 적용된 우수기술 • 과년도 수상자 현대건설 근무 소감·수상작 발표(대상, 금상)



GREEN SMART INNOVATION CENTER

제로에너지
빌딩,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입구에 들어서면 부메랑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역동적인 파사드를 자랑하는 이 건물은 지난 2014년 10월 준공된 연면적 2470m²(약 748평), 지상 4층 규모의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GSIC: Green Smart Innovation Center)'다.

GSIC





GSIC, 친환경과 스마트가 만났을 때

GSIC는 현대건설의 그린스마트빌딩 기술, 즉 대다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며 자동제어, 통합관리 기능이 총망라된 곳이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연평균 전력 수요의 약 25%를 충당하고 있는데, 냉난방 에너지 수요가 없는 시기에는 최대 70%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다.

특히 이 건물은 국내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에 이어 미국 친환경인증 제도인 LEED의 최고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을 획득하기도 했다. 실제로 옥상의 태양광발전시설에는 하루 평균 185kWh, 최대 370kWh의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며, 여기에 지열 193kWh, 태양열 105kWh 등이 더해져 하루 평균 총 에너지 생산량이 483kWh에 이른다. 이는 평균적으로 아파트 1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MEG: Micro Energy Grid)’로 묶여 통합 관리된다.

특히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저장해놓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힘입어 연간 6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절감할 수 있다. MEG가 하드웨어라면 이를 자동제어하는 관리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는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다. 현대건설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BEMS’가 적용돼 있는데 기존의 평범한 BEMS와는 차별화되는 기능을 자랑한다. 일반적인 BEMS는 건물 내의 에너지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는 반면, 스마트 BEMS는 다음 날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미리 예측한 뒤 전기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량과 가동 시간, 저장 여부 등을 자동 판단해 운영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냉난방 같은 건물 운영 스케줄 정도만 입력하면 BEMS가 과거의 건물 운영 데이터 및 기상 데이터 그리고 각종 센서로부터 얻는 정보를 분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자동으로 운용한다. 전기료가 비싼 낮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가동시키고, 심야에는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해 다음 날 낮 시간대에 소비하는 방식이다.

총별로 연구와 실험은 계속된다

GSIC 4층에 위치한 ‘제로에너지 실증주택’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로 줄이고 살 수 있는 집을 실험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다. 전용면적 85㎡ 규모로 고단열 단열재, 창호 및 고효율 전기, 기계설비 적용을 통해서 약 60%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했으며 추가적으로 지열,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을 통해 100% 에너지 절감 세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현대건설이 자체 개발한 ‘에너지·환경관리 시스템(TEEMS)’이 온도와 습도는 물론 실내공기 중의 CO₂ 및 유해물질 농도를 파악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3층의 통합운영실에서는 건물 내 에너지 흐름을 모두 볼 수 있고, 2층의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데이터를 수집하며, 1층과 지하에는 다양한 실험실을 마련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GSIC

MINI INTERVIEW

“컨버전스 기술 개발 통해 해외시장 진출 나서야죠”

GSIC의 그동안 연구개발 성과를 모은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GSIC에서는 건물의 생애주기(설계-시공-운영-폐기)에 걸쳐 화석에너지 사용과 환경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난 2년 넘게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2015년 10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현대건설의 ‘에너지 하이 세이프 시스템(Energy High Save System)’을 적용해 국내 최초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1++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 획득 예정인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GSI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신축건물 및 에너지 사용이 많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연구하고 실현할 방법을 찾아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건축기술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등 모든 영역 간 기술의 컨버전스를 모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도 그린스마트빌딩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설치확인 1등급 획득

2017년 3월 17일,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빌딩 시대의 핵심 기술인 BEMS 설치확인 1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개의 세부 항목에 따라 엄격한 확인 및 평가 작업을 거쳐 1, 2, 3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예측 및 자동제어 등의 고도화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건물에너지 목표관리(소비-생산), 인공지능 기반 공조복합제어,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 최적 운전 등 최고 수준의 에너지 예측 및 제어 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린도시연구팀 김형래 부장



기업의 활동은 결국 사람의 활동이며, 특히 건설업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분야다. 현대건설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전부'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100년 건설명가를 이끌 인재경영에 집중해왔다. 불굴의 도전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국내외 건설 신화를 써 내려간 현대건설의 수많은 인재들. 오늘도 현대건설은 특유의 현대건설 정신으로 중무장한 인재들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건설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다.

사 람 에 서
시 작 한 다

인재 경영

MAN POWER



사람이 경쟁력, 현대건설의 인재 찾기 노력

좋은 인재는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자산이자 자긍심이다. 우수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바람은 모든 기업의 공통점이지만, 현대건설의 인재경영 철학은 조금 다르다. 흔히 '스펙'이라 얘기하는 학벌이나 각종 성적보다 더 큰 무게를 두고 보는 것이 가능성과 도전정신이다. 도전정신이야말로 현대건설 70년을 이끌어온 근간이기 때문이다.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 인재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한 다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나간다는 인재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이노베이티브 챌린저(Innovative Challenger)'는 현대건설의 그런 믿음이 응집된 인재상이다.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불가능을 극복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인재를 의미하는 '이노베이티브 챌린저'는 '밸류 크리에이터(Value Creator)'이자 '시너지 빌더(Synergy Builder)', '글로벌 디벨로퍼(Global Developer)'라 할 수 있다. '밸류 크리에이터'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끝없는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말한다. '시너지 빌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직 내에서의 시너지를 구현하는 인재, '글로벌 디벨로퍼'는 글로벌 역량, 열린 사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건설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현대건설 임직원 모두가 이러한 인재경영의 값진 증거라 할 수 있다.

인턴제도는 우수 인재를 선점하는 동시에 취업난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가 융합되고 새로운 기술 적용이 활발한 건설업의 최근 추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건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 현장에서 현지인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인사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 관리자 직급의 현지인 채용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인재는 우리가 만든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 현대건설이 육성하고자 하는 우수 인재가 무엇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경쟁력이다. 현대건설은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정보와 지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식경영에 기반을 둔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학점 이수제도는 사내직무교육, 사이버교육 및 유관 협회, 기술교육원 등의 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는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다 심화된 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 석사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 해외사업 비중을 늘려가는 데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도 집중 강화하고 있다.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미국, 영국 등의 선도기업 및 전문교육기관에 중장기 파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성과까지 얻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전문가 프로그램, 기술 전문가 프로그램, 현장소

장 양성교육 등 맞춤형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영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어학교육 역시 꾸준히 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어 집중교육, 제2외국어 집중교육 및 사이버 어학교육, 전화 외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글로벌 감각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더불어 해외사업 수행 역량을 높여줄 클레임·공정관리, 해외인력 풀(Pool) 양성교육은 물론 최근에는 임직원 의식 함양 및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교육 개발과 실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977년부터 운영 중인 현대건설 기술교



육원은 매년 수료인원의 약 90%가 취업에 성공할 정도로 건설기능인력의 산실로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모범적인 민간기업 사례로 평가받으며 동남아시아 15개국을 비롯해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견학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뛰어난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정한 평가·보상은 인재도 춤추게 한다
직장인이 가장 '일할 맛' 날 때는 능력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때일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정한 평가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수행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12년에 도입한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 기반의 인사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임직원의 성과달성도, 강점 및 개선 영역을 기반으로 한 역량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능력 우수자에 대한 발탁인사와 해외 근무 기회 부여, 직무순환 등 효율적인 경력관리를 통한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우수 사원, 무재해 달성, 준공 우수 현장 등 각종 포상제도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동기유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특유의 도전정신과 글로벌 감각으로 무장한 인재들을 길러낼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인재경영의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현대건설의 사훈에는 근면, 검소와 함께 친애가 있다. 초창기 친애를 바탕으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사를 이끌어온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직원 서로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상부상조의 직장 분위기는 지난 시간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었고,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해나갈 현대건설의 정신적 기반이다.

가정의 날, 가족사랑을 실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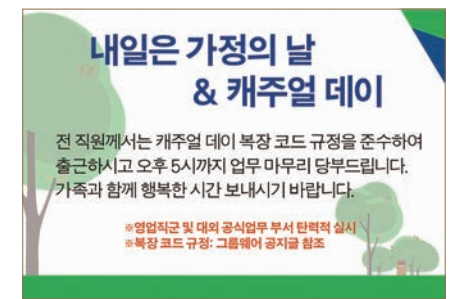
현대건설은 2011년 6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른 날들도 마찬가지로 특이 가정의 날엔 야근과 특근 등을 자제하는 대신 근무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높여 일을 처리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도록 권고한다. 가정의 날의 영향은 비단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 회사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2016년부터는 매년 2회,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족 간 유대감 및 소통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복지는 계속된다

현대건설은 임직원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에게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분야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제공된다. 2016년에는 온라인 복지포인트몰을 오픈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의 직원들이 편리하게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해비치, 대명, 한화 리조트 등 현대건설 휴양소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아웃도어 레포츠복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직원 힐링 프로그램(EHP: Employee Healing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직원 상담센터나 온라인 건의함은 회사 관련 주제에 국한되었으나 부부 문제나 자녀 양육, 대인 관계를 비롯해 재무와 법률까지 임직원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한다. 관련 전문가들이 한결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15년 12월에는 임직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근무하는 건설 현장을 방문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에는 남미 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가족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엄마와 아내로서, 아빠로서의 역할 보장

현대건설은 여성의 보다 활발한 사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성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5년에는 출산을 앞둔 14명의 여성 직원 모두가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고 192명의 남성 직원이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했다. 출산 휴가 사용 후에는 206명 전원이 100%의 업무 복귀율을 보였다. 한편, 현대건설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족과의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빠가 쓴다'는 임직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자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벤

외국인 직원도 모두 한 가족

가정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도 가족과 같은 소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은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임직원들은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취미와 학업, 업무 관련 다양한 동호회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외국인 직원들이 국내 생활에 쉽게 적응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 생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한편 업무 진행 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룹웨어 및 사보 등을 영어로 제공해 어려움 없이 회사의 정책이나 방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現代建設〉에서 〈HYUNDAI E&C TODAY〉까지

임직원들의 소통 채널 사보

사보의 뿌리, 사우지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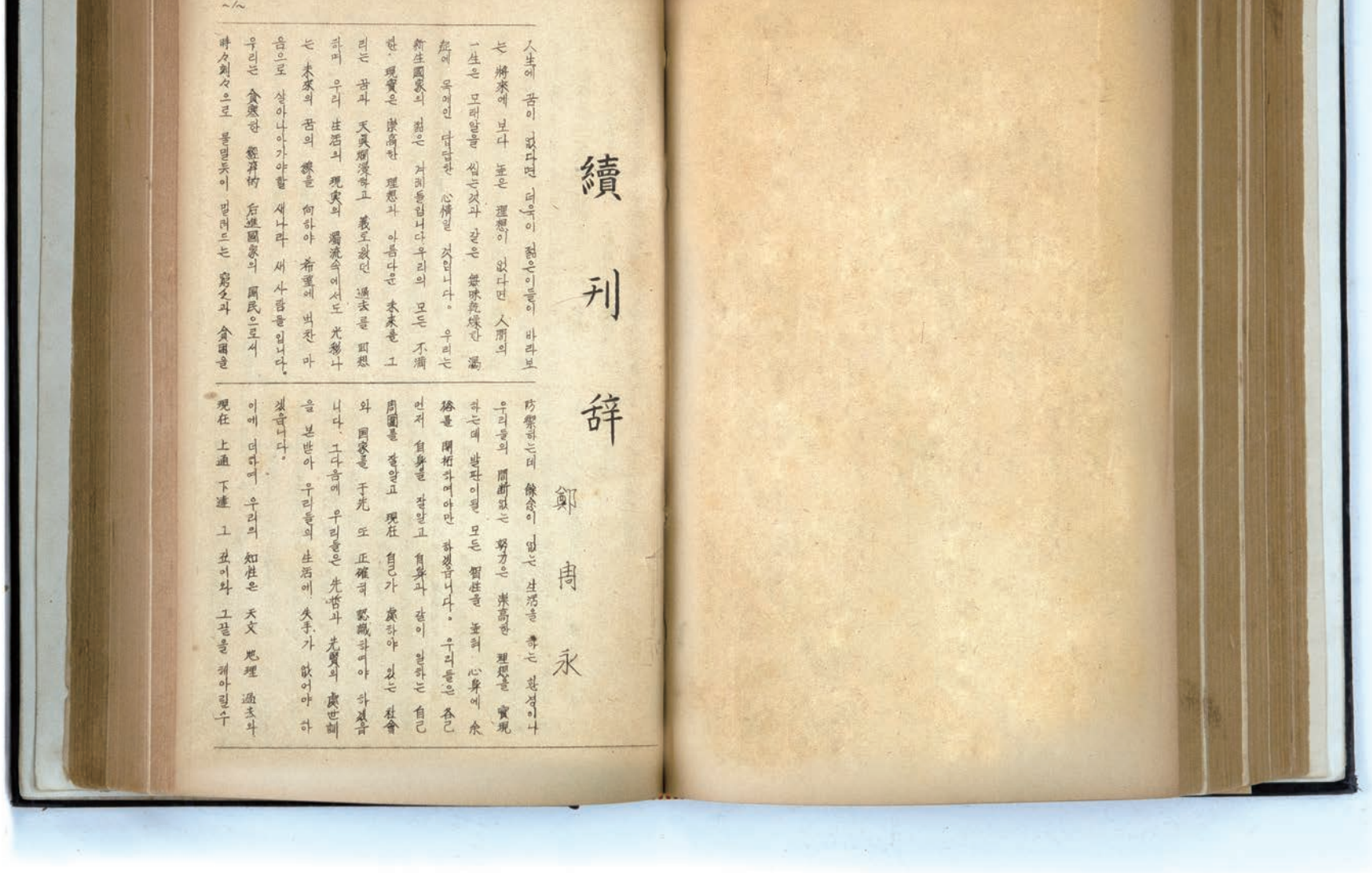
6·25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피란 시절, 당시 일간지 기자로 재직하던 정인영 부사장의 주도로 창간됐다. 원고를 일일이 손으로 써서 등사하는 등 어려운 제작방식 때문에 휴간과 속간을 반복하며 비정기적으로 발행됐다.

사보신문의 효시, 타블로이드 판형의 소식지 〈現代建設〉

소식지 〈現代建設〉은 1979년 1월에 창간되어 제86호까지 발간되다 폐간되었는데 1988년 9월에 통권 제87호로 복간됐다. 이때부터 12페이지 전면 컬러의 변형국배판(230mm×290mm) 책자 형태로 월간 발행됐고, 1989년 2월호부터는 32페이지 구성의 4×6배판(180mm×250mm) 책자로 제작됐다. 1996년에는 4×6배판 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68~76페이지로 분량이 늘어났고, 내용 면에서도 사내 뉴스의 보도(뉴스, 영상포커스), 직원 및 가족들의 의견과 문예작품(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서벤치), 직원들 소개(현장소식, 도전하는 사람들), 건설업계 주요 동정 등으로 다양해졌다. 2000년대 말 제235호까지 발행되었으나 2001년 현대건설에 불어 닥친 유동성 위기와 함께 잠시 폐간의 위기를 맞았다. 이후 인터넷 사보 형태로 명맥을 이어오던 〈現代建設〉은 심현영 사장 재임 시절 사우들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단합과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9월 새롭게 사보신문의 형태로 창간호를 발행,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소통을 모색하는 〈HYUNDAI E&C TODAY〉

현재의 사보신문은 2001년 9월 28일에 창간됐다. 창간 당시 〈現代建設〉이란 제호를 사용하던 사보신문은 대판 형태(391×545mm)의 격주간지로 발행되다 2007년부터 페이지를 늘려 월간으로 제작됐으며,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베를리너 판형(323×470mm)으로 격주 발행되고 있다. 사보신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제호도 한문 형태의 〈現代建設〉에서 〈HYUNDAI E&C TODAY〉로 변경됐다. 국영문 혼용 기사를 통해 글로벌 외국인 임직원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우지 속간사(1961).
손으로 일일이 써서 등사하던 방식이라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정성과 품이 들어갔다.

사보신문 인기 코너들

01. 계동산책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전통 있는 코너. 회사 인근에 새로 생긴 맛있는 음식점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 등을 소개한다. 화식이나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02.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운 부서 내 상사와 부하직원, 타 부서 직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한 일일 데이트 코너. 스키 타기, 와이너리 투어, 경비행기 체험 등 다양한 이색 이벤트를 마련해 호응이 높았다.

03. 맛집 플래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배우자와의 오붓한 데이트, 결혼을 앞둔 사우를 위한 맥줏집에서의 파티 등 사연과 함께 참가자들의 숨은 맛집을 공개하던 코너.

04. 사진 콘테스트

아이의 사랑스러운 표정, 애완동물의 귀여운 모습, 결혼과 출산같이 특별한 날의 풍경 등 사우들의 소중한 일상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여줘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코너.

05. 당신의 일터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우들의 가족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일일체험을 진행했다. 아내는 남편의 고된 하루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아빠가 시공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06.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선남선녀 사우들의 성혼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당시 많은 미혼 남녀 사우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07. OB & YB 만남

과거 현대건설에 근무했던 임직원과 현재 근무 중인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코너로 현대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끈끈하게 얹힌 선후배의 두터운 정을 돌아보게 한 뜻깊은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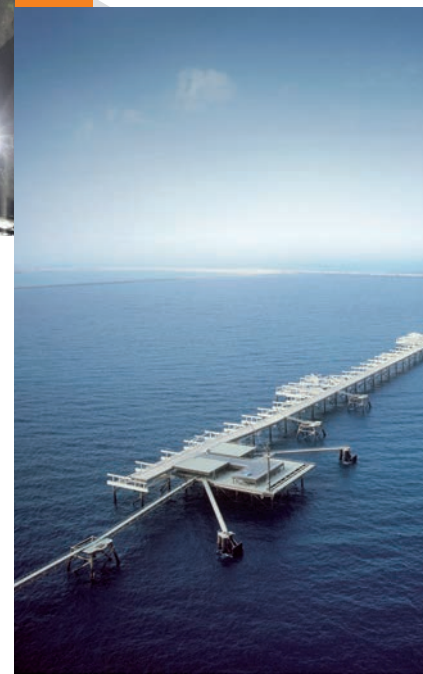
08. Tune in to you

2017년 첫 시행된 외국인 직원 설문조사 코너. 외국인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

70년을 넘어 100년으로 현대건설의 성공 신화

현대건설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업계의 만형이자 종가(宗家)’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우리나라 건설의 역사는 현대건설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1947년 창립 이래 줄곧 국내 최고 건설사의 명성을 이어온 현대건설은 이제 건설 한류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 7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2017



유구한 역사를 따라 흐르는 현대건설의 위업

1947년 현대토건사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70년을 이어오는 동안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만들며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대표 건설 종가로 자리매김해왔다. 국가산업을 넘어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품질의식, 성실한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얻은 시장의 신뢰와 우수한 인적자원, 선도적 건설R&D 성과 등은 현대건설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건설의 눈부신 성장을 대변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대건설이 함께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76년에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이 산업항 공사는 ‘20세기의 대역사’로 불렸다. 페르시아만의 거센 파도에 맞서 400톤의 재킷을 한계오차 5cm의 범위 내외에서 2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당시의 시공기술로는 불가능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어려운 미션이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모두의 우려를 불식하며 끝내 성공시켰다. 1985년에 개통한 말레이시아 페낭대교는 총 연장 13.5km, 폭 19.5m의 4차선 교량으로 당시 아시아 최장,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였다. 현대건설은 페낭대교의 압도적 규모와 함께 기술 장벽을 뛰어넘었다. 당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던 콘크리트 사장교 건설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교량기술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킨 것이다. 이란의 초대형 가스처리시설인 사우스파 가스전 4·5단계는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최단기간인 35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준공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유동성 위기는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현대건설을 워크아웃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5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 건설사로 복귀했으며,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으로 합류한 이후 내실경영 강화를 통해 더욱 가파르게 성장했다.



다음 100년을 위한 현대건설의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건설의 기존 영역을 뛰어넘어 기획과 운영은 물론 금융까지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 프로바이더(Total Service Provider)’로 전진해나갈 것이다. 차별화된 경쟁력과 변화를 선도하는 실행력으로 현대건설은 더 높이 비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신화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그룹에 합류한 2011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현대건설은 누적수주액 106조 1281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100억 원의 누적수주액 까지 도달하는 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여가 소요된 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절반 가까이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듬해 2016년 현대건설은 또 한 번 놀라운 기록을 작성했다. 한 해 동안 현대건설이 거둔 영업이익은 1조 527억 원. 이는 건설업계 최초의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라는 신기원이었다. 수주액 또한 전년 대비 7.1%나 상승한 21조 2295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의 이 같은 성과는 저유가에 따른 해외 건설경기의 부진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딛고 이뤄낸 것이라 더욱 깊은 의미를 지녔다. 특히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이 기업의 질적인 성장뿐 아니라 규모 등 양적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다.

이 기간 동안 현대건설은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동 중심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 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 신흥시장에 집중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고부가가치 공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한 대신 신흥시장에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대건설의 이러한 시도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건설업계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2017년, 현대건설은 ‘SMART경영’의 화두를 새롭게 꺼내 들었다. SMART의 다섯 철자는 각각 경영환경의 급변에 따른 속도감 있는 대응(Speed),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과학적 리스크관리(Measurable), 달성 가능한 목표의 설정(Attainable)과 현실화(Realize), 불변의 가치 안전의 실현(Timeless)을 의미한다. 현대건설은 새로운 추진력을 장착하고 그동안 달성한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 인류적인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H-HARMONY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하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윤리경영과 상생경영,
품질경영, 안전녹색경영,
그리고 나눔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기업임을 자부한다.
누구보다 먼저 나눔과 동반성장 가치를
술선수범해온 현대건설.
전 인류적인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현대건설의 면면을 만나본다.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현대건설의
노력

현대건설의 강인함 이면에는 세상을 향한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숨어 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의 것이지만 커지면
직원 공동의 것이며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것'이라는 기업의 책무를 잊지 않고
오늘도 세계 곳곳의 소외되고 낮은 곳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땅 위에 기술을 짓고 이웃의 마음에는 사랑을 짓는 현대건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SOCIAL
CONTRIBUTION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를 살피다 사랑나눔

사랑나눔 활동은 건설업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와 해외 저개발국의 공익증진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현대건설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스리랑카,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문화 등의 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 전략에 발맞추어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의 참여를 통한 해피무브 글로벌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발족한 '집수리 로드' 봉사단은 이공계 대학생과 협력해 산간 오지 지역에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15년에는 90여 명의 대학생과 함께 총 5개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대상 지역 및 참여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집수리 로드 봉사단
- 저개발국 위생복지 지원사업
- 사랑나눔 기금 모금 캠페인
- 해피무브 봉사단
-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설립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힘쓰다 희망나눔

희망나눔 활동은 국내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2009년부터 저소득층 결식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도시락’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서, 교육, 문화적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멘토링 결연 활동으로 지금까지 34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했다. 또한 2014년에는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교육장학 활동을 지원하는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을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 사랑나눔 도시락 배달
- 직무 체험 연계 봉사활동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다 문화나눔

문화나눔 활동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보전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을 증진·지원한다. 2005년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궁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금천교 복원공사를 지원하고, 2013년부터 '한강생태보호 활동'을 활발히 벌여 자연유산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국립공원 내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을 벌여 1호점 지리산, 2호점 북한산에 이어 2014년에는 3호점 태안국립공원에 자원봉사센터를 준공, 개소했다. 한편, 북촌 미관 개선 사업은 물론, 사옥 주변에 위치한 계동초등학교의 노후 담벼락을 보수하고 한옥 전통 문양의 벽화를 그림으로써 북촌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문화지킴이 활동
- 고궁 복원 사업
- 북촌 미관 개선 사업
- 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 건립 후원



현대건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세상과 사회를 향한 현대건설의 노력,
짧은 숫자 속에 담긴 속 깊은 이야기를 전한다.



현대건설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교육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총 15개 국가 27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개발도상국 진출 시 현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해당 지역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상생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함께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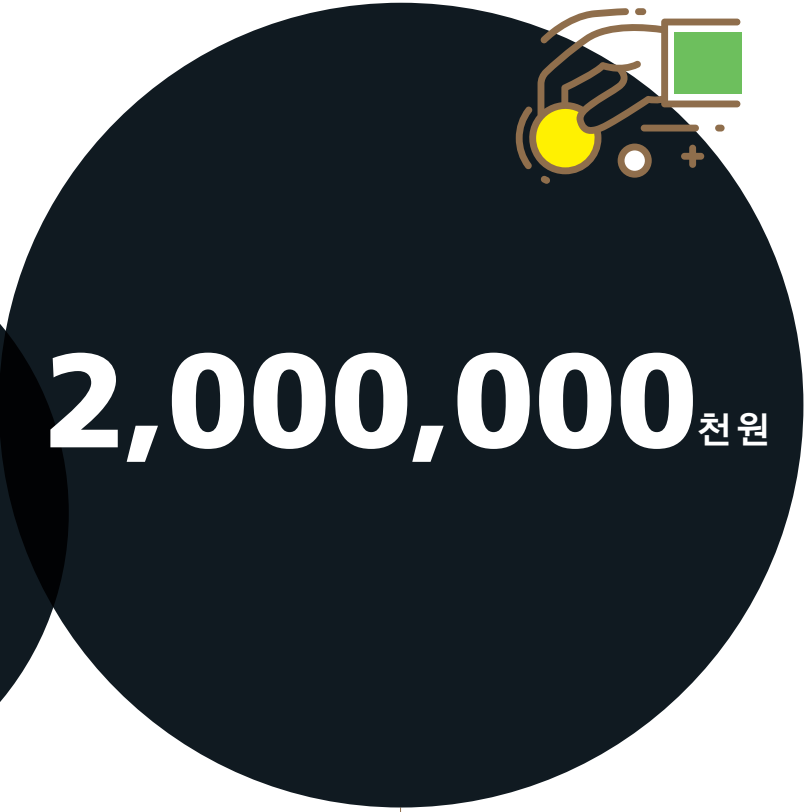
현대건설은 2016년 건설안전 및 자동차 정비 기술을 통해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의 기술을 베트남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1호를, 2017년에는 플랜트 배관 및 용접 교육 등 현대건설만의 심화된 기술 노하우를 전하는 드림센터 2호를 선보였다. 특히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2호는 체험 실습장비 자원은 물론 현대건설의 안전, 배관, 용접 기술자의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건설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드림센터 1호의 학생 250명이 건설안전 과정을 수료하며 베트남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 우수한 인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경제적인 후원이 아닌 특화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베트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1호
첫 졸업생



현대건설 신입사원들은 2015년부터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전기가 부족한 국가에 휴대하기 편리하고 4시간 충전하면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태양광 랜턴을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신입사원의 입문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손수 쓴 정성이 담긴 편지까지 더해 희망의 빛은 더욱 환하게 타오르고 있다.

희망의 빛을 전하는
태양광 랜턴 제작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3000원~3만 원까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급여의 끝전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금액은 약 20억 원(2010년~2016년 말)에 달하며 필리핀 커뮤니티센터 건립, 다문화가정 자립지원사업, 아프리카 케냐 식수지원사업, 종로구 소외계층 집수리, 연탄지원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사용됐다. 현대건설은 2016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 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사랑나눔기금
<급여 끝전 모으기> 누적금액

국내는 물론 세계 건설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확고한 위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협력사와의 협업은 현대건설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30대 건설사 중 70%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혹독한 현실에서 현대건설이 오롯이 건재할 수 있는 데는 홀로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한 지혜와 책임감 덕분이 크다. 교감과 소통을 통해 함께 이루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결실을 나누어온 현대건설의 꾸준한 발걸음. 현대건설의 동반성장 노력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고 다채롭다.

협력사 상생경영

더불어 사는 세상의
따뜻한 이상을 실현하다

CO- OPERATION

01

어려울수록 함께 금융 지원

현대건설은 2010년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60여 개 협력사에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최저 1.5% 저금리로 시행 첫해부터 협력사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2013년 259개사 407억 원, 2014년 250개사 159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유동성 확보에 기여했다.

동반성장펀드 역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2010년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11년 280억 원, 2012년 200억 원, 2013년 200억 원, 2014년 200억 원, 2015년 20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해 매년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시중금리보다 1.0% 이상 낮게 제공된다.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협력사들의 호응이 높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긴급자금이 필요한 36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이자 150억 원의 자금을 대어했으며, 2017년까지 60여 개의 협력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매년 약 7000만 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특별 출연해 협력사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금 지급 기일을 13일 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각 사업단위로 흩어져 운영돼오던 협력사 모임을 2012년 '협력사협의회'로 통합해 출범시키고, 2016년 평균 20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H Leaders'로 명명된 우수 협력사들은 계약이행보증금을 50% 감면 받고 있다.



2010년 4월부터 현대건설은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희망 협력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중동의 국제관계,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및 현지 인력 소통, 구매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협력사들의 해외 진출에 실제적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얻었다. 현재까지 408개사 임직원 433명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에 대한 거시적 이해는 물론, 사무소 설립 시 고려사항이나 국가별 세무 및 금융 제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같은 해 현대건설은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도 시작했다. 시공능력 등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정해 현대건설 주요 현장 견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카타르, UAE, 싱가포르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현장 운영의 노하우 전수뿐 아니라 해당 국가 진출을 돕기 위한 설명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해외 현장 견학 비용 일체는 현대건설이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지속한다는 의미에서 향후에도 해외 현장 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력사 관계자들은 앞선 해외 현장 시찰을 통해 현지 건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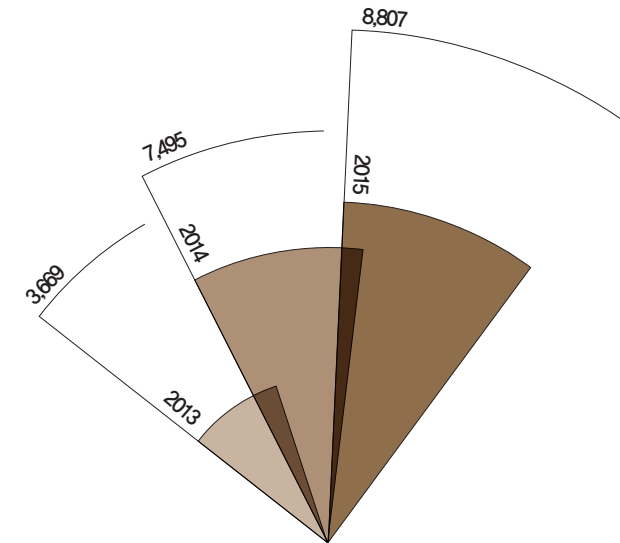
해외로 뻗어나가다 동반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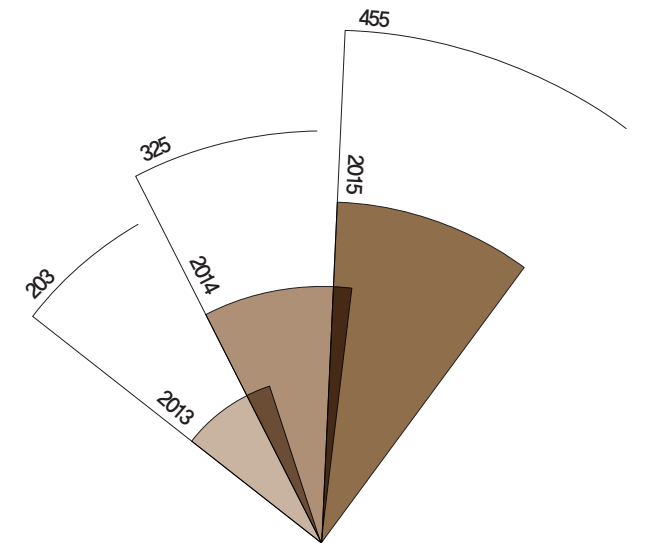
노하우를 나누다 교육

03

현대건설은 협력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 품질, 공정, 윤리 교육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협력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품질 및 투명윤리 교육, 시공 협력사 공정 교육, 해외 공사 진출 지원 교육 등 2015년 기준 총 92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945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또한, 협력사 협의회를 구성해 경영자 세미나 및 전체 등록업체 대상 공종별, 분기별 동반성장 세미나를 실시해 교육 자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 기술을 전수 및 공유할 뿐 아니라 자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매해 현대건설 기술대전을 운영하며 2015년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5건을 협력사에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 수혜 협력사 매출 증대액(단위 : 억 원/누적)



교육 수혜 협력사(단위 : 개사/누적)

04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 지원

현대건설은 다양한 협력사 복지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협력사 임직원에게 무료 건강검진은 물론, 전문병원의 종합검진 할인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용 온라인몰도 운영할 방침이다. 반기별 4회에 걸쳐 실시하는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운영방안 및 외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협력사의 제안 및 건의사항은 현대건설 상생협력팀 전담 직원이 실시간으로 접수,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협력사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 임직원은 물론 150개가 넘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소통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이 행사에서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뛰어난 품질 및 납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최우수 협력사, 우수 협력사를 선정, 포상한다. 선정된 우수 협력사는 해외 현장 견학, 입찰추천평가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건설 시장의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동반성장의 지평을 여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 외주 시스템인 '하이파트너' 상에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해 신규 현장 개설 정보 등 협력사의 안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의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생협력팀 내 전담 직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협력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멘스(주)

김종갑 대표이사·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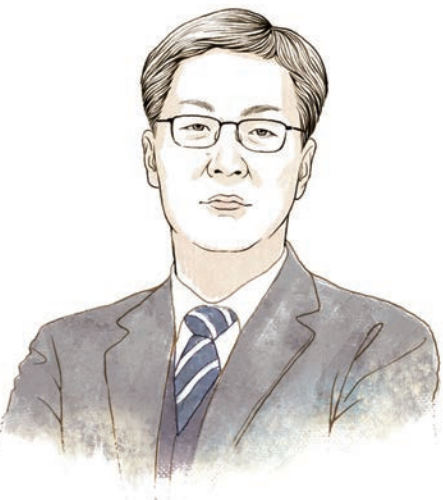


● 두터운 신뢰와 믿음의 40여 년 인연

지멘스(주)의 역사는 현대건설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50년대 전후 폐허였던 한국에 진출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 송·변전 등 전력화 사업을 비롯해 도시 인프라, 자동차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1970년대 국내 원자력발전의 시초가 되는 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 사업에 터빈과 발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멘스(주)의 한국 진출이 훨씬 전이니 아마도 그 이전부터 함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멘스(주) 김종갑 대표이사·회장은 현대건설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한다. 40여 년 동안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영광의 순간도 많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순간도 많았다. 그 유구한 시간을 되짚어보며 내린 결론은 함께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두터운 신뢰와 믿음이라고.

“현대건설과 협력하면서 윈윈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머리를 맞대면 결국 해결해내거든요.” 현대건설과 지멘스(주)는 현재 고양 삼송발전소, 현대그린파워 5·6·7·8기 건설을 필두로 알제리와 우루과이 발전 플랜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해외 진출에서도 현대건설과 지멘스(주)의 협력은 빛났다. “현대건설과 지멘스(주)가 오래도록 한결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눈앞의 이익을 좇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창업정신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같고 나아갈 방향이 같았기에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미 걸어온 길보다 더 환하게 뻗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협력사와 더불어 함께 일군 오늘,



경창계전

이성욱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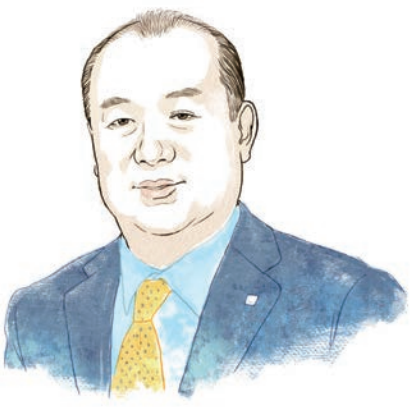
2대째 협력은 계속된다

경창계전과 현대건설의 인연은 한참 시간을 거슬러 1964년 5월 영월 제2화력발전소 공사에서 출발한다. 이때부터 현대건설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전기 파트는 경창계전에서 상당수 담당해왔다. 특히 플랜트 부문에서 경창계전의 활약상은 익히 정평이 나 있다. “현재 경창계전 회장인 아버지께서 당시 영월 제2화력발전소 공사에서 전기기술자로 활약하

셨습니다. 그 공사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현대건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 협력사 순위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데요.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실력 있는 협력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경창계전은 ‘경창계전 아니면 안 된다’는 평가를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공사의 경우, 뜻하지 않은 상황에

신영토건

이용완 대표



● 마침내 해결해내는 현대건설의 저력

신영토건 이용완 대표는 과거 현대건설맨이었다. 10년 넘게 주택사업본부에서 토목 관련 업무를 맡았었다. “현대건설과의 인연은 재직 때부터 셈하면 30년이 훨씬 넘습니다. 신영토건 창업 초기 멤버들은 대부분 현대건설 출신이죠. 그렇다 보니 현대건설과 함께하는 일은 애정이 큼니다. 협력사로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일이고 우리 일인 거죠.” 아무래도 현대건설 DNA를 갖춘 인력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보니 일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것도 신영토건이 가진 장점이다. 덕분에 2004년 이후 매년 우수 협력사로 선정돼 왔으며 H-Leaders 회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업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소통도 모색하며 진정한 상생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신영토건이 현대건설과 진행한 프로젝트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에게는 특히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를 남긴 경우가 많다. 국립디지털도서관 토

목공사 때는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소음과 진동을 전하지 않기 위해 에어돔을 씌우고 발파 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우수한 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서로 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기에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협력사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리고 매년 열리는 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보람이 큼니다. 진심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려는 현대건설의 강한 의지를 느끼는 기회가 됩니다.” 현대건설이 홀로 성장할 수 없듯이 신영토건도 마찬가지다. 우수 협력사라는 타이틀을 수여받을 수 있었던 건 현대건설에서 마련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현대건설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협력하며 그 울타리를 더욱 키워가고 싶다는 신영토건. 서로 상생 발전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한다.

이 순간

맞닥뜨리곤 한다. 간혹 협력사가 부도가 나는 등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럴 때 경창계전의 활약은 빛난다. 위기를 해결할 저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해결 방법은 있다고 믿으며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을 좇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는다. 이것은 2대에 걸쳐 이어지는 경창계전의 경영이념이기도 하다.

“고리원자력 5·6호기 공사의 경우엔 전국 각지의 전기기술자는 다 모았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직업학교마다 연락해서 어시스턴트를 찾기도 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프로젝트였죠. 한빛원자력 5·6호기 역시 300여 명이 넘는 전기 관련 인력을 투입해 공기를 맞추고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대건설과 협력사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창계전은 스스로를 협력사라고 생각하며 선을 긋기보다는 현대건설의 계열사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창계전은 길게 멀리 바라보며 내일의 길을 만들어간다. 그 길에 현대건설이 함께하리라는 굳은 믿음과 더불어 신의와 정도를 지키는 일. 이 당장은 어렵지만 훗날 분명 값진 열매가 있음을 잘 아는 까닭이다.

기업윤리가 무너지면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다.
현대건설은 일찍이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 모토로 삼아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승화시킨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으로 평가받아왔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방침을
전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까지
확대해 실천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경영,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1999년 윤리강령을 제정한 현대건설은 2005년 2월 윤리경영헌장을 선포했다.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현대건설은 윤리경영 현장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다

현대건설의 윤리경영은 2011년 4월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후 관련 조직의 정비를 통해 보다 완성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의 전격적 시행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윤리경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거세짐에 따라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법무실 내에 준법지원팀을 신설, 윤리경영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객관성을 갖춘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과 위반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협력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등록 절차 및 선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큰 회사가 아닌
좋은 회사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윤리경영

인식 전환을 통해 근본부터 바꾸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5년 이래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5년 2월에는 임직원 대상 기업윤리 실천규범준수 서약 및 실천결의대회를, 같은 해 10월에는 협력사 대상 자정준수 서약 및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법 위반 예방의지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수주 관련 임원을 대상으로 자필 서약과 법무법인 공증을 실시했다. 또한, 2000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강령 선포 및 서약을 추진, 윤리의식 고취 및 실천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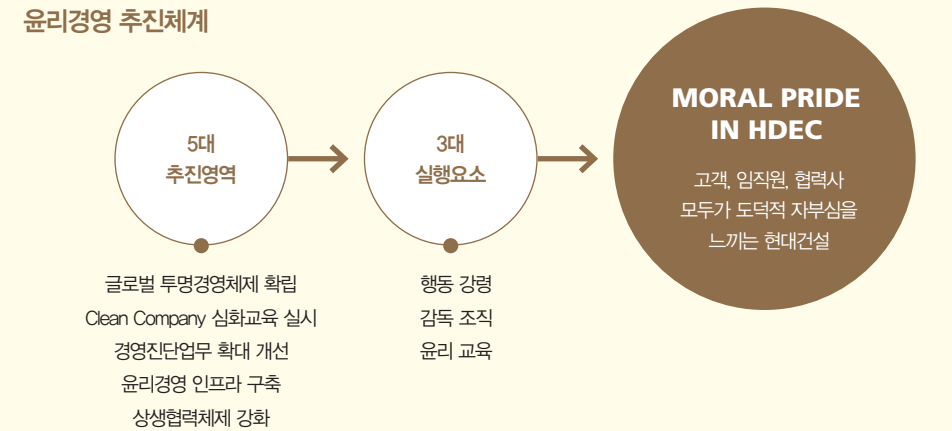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관련 문화의 정착을 위해 온·오프라인 윤리 교육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한 교육도 시행 중이다. 교육에 참가한 협력사 임직원들은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 준수 의지를 다지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편, 현대건설은 2017년 4월에 익명 게시판과 유선 및 이메일을 활용한 윤리·준법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회사의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고충을 일대일로 상담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합한 행동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향후 주요 상담 내용은 FAQ로 정리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 사전 점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중에는 윤리·준법 상담센터는 물론, 회사와 관련된 법규정,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임직원이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착과 실천을 위한 상호 피드백

현대건설이 윤리경영 관련 시스템의 마련과 교육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는 궁극적 이유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식도 조사와 같은 점검작업을 통해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피드백을 통해 윤리경영의 정착을 꾀하고 있다. 2006년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인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윤리경영의 실천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현대건설은 2007년 경영진과 직원 간담회를 통해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했다.

2015년 4월부터 매년 윤리경영 실천 의식을 점검하고 영역별 개선점을 진단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

윤리경영 추진체계



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리경영 일반, 규범 및 지침, 비윤리행위 신고, 교육 및 캠페인의 4개 영역에 대한 면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윤리경영 실행 시의 장애 요인 파악과 개선 과제 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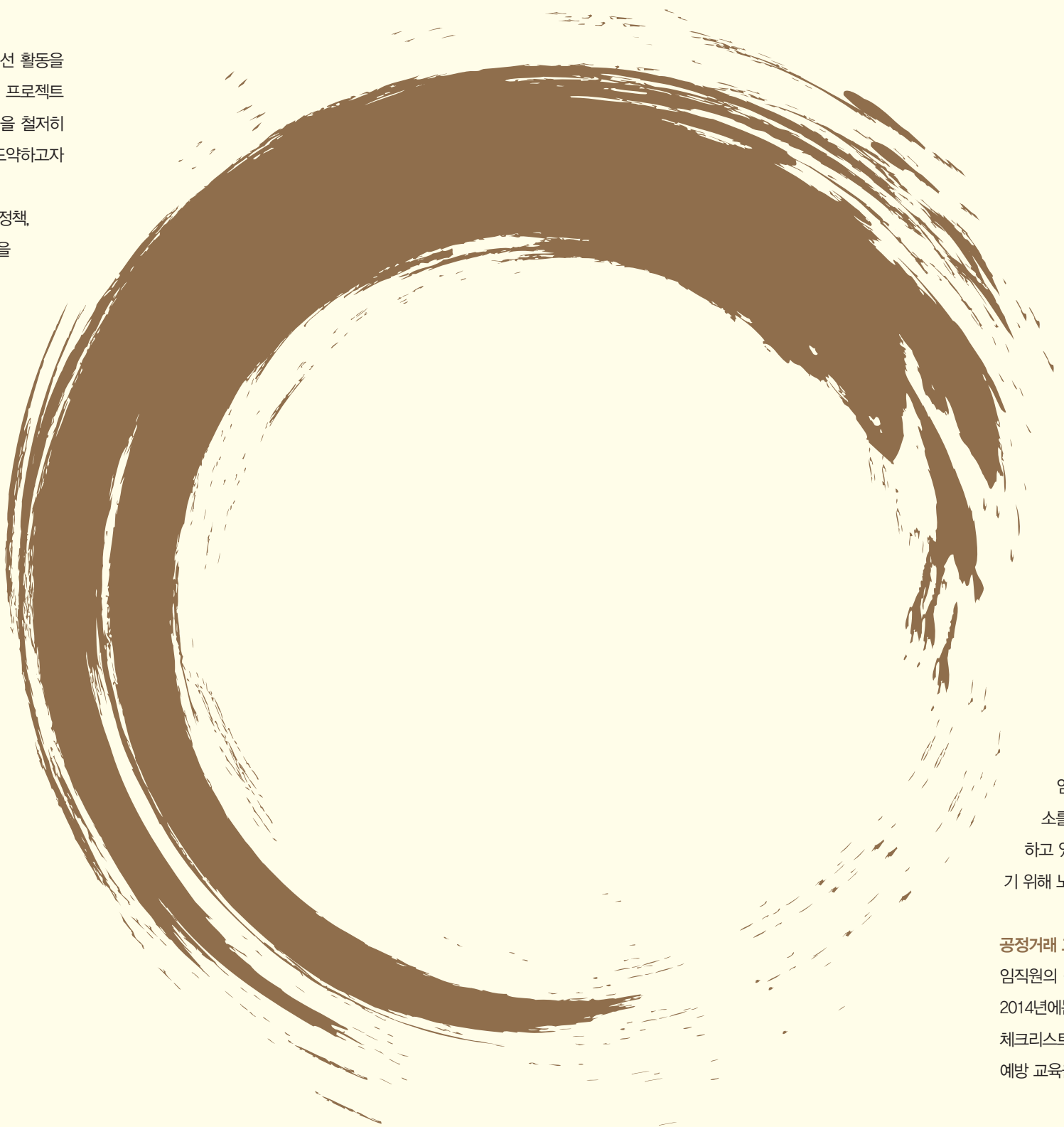
실천을 위한 길을 제시하다

현대건설은 윤리경영 인식도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토대로 윤리경영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반독점 정책(Antitrust Policy)'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 시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 할당, 집단 보이콧 등의 독점 금지와 공정거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현대건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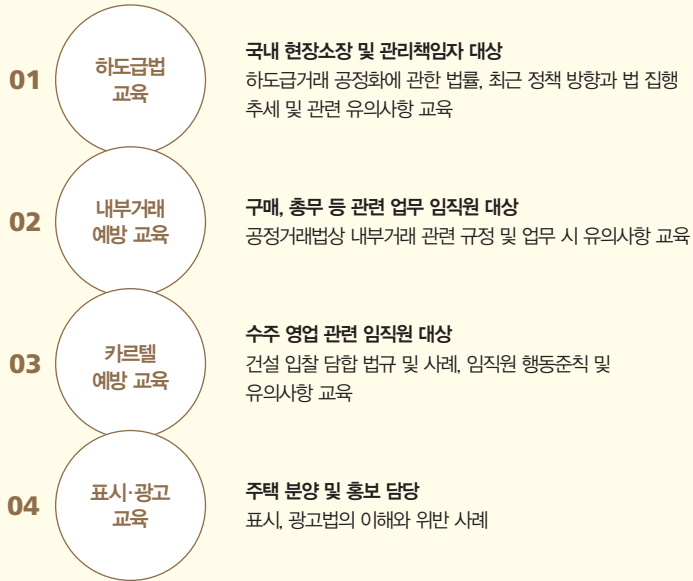
2017년에는 기존 5개로 나뉘어 다소 연계성이 결여돼 있던 윤리규정을 윤리규정, 세부정책, 해설서 형태로 개정해 체계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행동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적용되는 부패방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 위법 사례에 대한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현대건설은 2012년 8월 20일, 현대건설 홈페이지 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사이버 감사실을 확대, 개편해 자체 홈페이지를 신설했다. 사이버 감사실(www.audit.hdec.kr)은 윤리경영 강령 및 각종 규정 안내,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비리 제보,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영문 사이버 감사실을 개설하고 해외 국가별 핫라인을 운영해 현지 현장으로부터 제보 접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익명 제보를 보장하며 모든 제보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 제보자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감사사례 및 고객의 목소리' 등의 코너를 신설해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일방적인 제보 위주의 사이트에서 벗어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대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를 내재화하기 위해 6회에 걸쳐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했으며,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 이슈 및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전파했다. 2014년 10월에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준수 체계 구축

임직원의 공정거래의식 고취를 위해 현대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 핵심 요소를 선정해 이행하고 있다. 자율준수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공정거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들에 대한 중점적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 교육 강화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 중이다. 2014년에는 분야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내부거래,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별 체크리스트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체계를 강화했다. 2015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예방 교육을 확대 제공하고, 대상별 사내강사 교육을 실시해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다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기후변화, 인구 증가,
에너지·물 부족 및 자원 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종합건설사로서 친환경 건설제품과
건설기술을 통해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터전
(Sustainable Habitat for Human)' 제공을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2년 ISO 50001 인증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및 적용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공인하는 에너지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증 획득(세계 건설업 최초)

2012년 이후

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 5년 연속 수상

2015년 이후

CDP Korea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3년 연속 수상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과 관련된 경영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국내 산업재 부문
최우수기업에 해당하는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와 이 중 5개 최우수기업을 꼽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연이어 획득

2011, 2012년 CRRA 수상

CRRA(Corporate Register Reporting Awards)는 영국 CR(Corporate Register)사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평가

2009년 **DJSI Korea** 첫 편입

2010년 이후 **DJSI World** 7년 연속 편입

2013년 이후 **DJSI**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 4년 연속**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
발표하는 평가로 세계 건설기업 중 유일하게 DJSI World에 7년 연속 편입

스포츠의
열정을 통한
현대건설의 도전정신

H-VICTORY

1977년 창단한 현대건설배구단은
실업리그 시절부터 우승 왕좌를 놓치지 않은
대한민국 대표 명문 구단이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기업 경영을 비롯해
현대건설인 모두에게 체화된 현대건설만의
뜨거운 진취와 도전의 DNA다.
나아가 현대건설배구단은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감 키워드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별을 향해 쏘다 현대건설배구단

1977년 실업팀으로 출범해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현대건설배구단은 명실상부한 한국 여자배구의 명문 구단으로 꼽힌다. 국내 최초 겨울리그 10회 우승, V리그 통합우승 등 기록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거요미’ 양효진, ‘꽃사슴’ 황연주 등 스타 플레이어의 산실이며 V리그 여자 프로배구단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배구 명가’라는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고, 특유의 탄탄한 조직력과 함께 높이와 속도가 다른 파워풀한 공격으로 배구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현대건설배구단의 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상을 기대한다.

40년 ‘강팀’의 헤리티지

올해로 창단 40년. 우리나라 여자배구 역사에 우승의 발자취를 가장 많이 남기고 있는 현대건설배구단은 지난 2015~2016시즌 V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또다시 트로피를 차지하며 빛나는 기록을 한 줄 더 추가했다. ‘건설명가’ 현대건설이 긴 시간 공들여 이룩한 ‘배구명가’. 그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흘린 무수한 땀방울에 대한 다디단 열매를 맛본 순간이었다. 벅찬 기쁨과 영광에 젖는 것도 잠시, 곧바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성실함이 있기에 현대건설배구단의 승승 장구는 더 힘차게 이어질 것이다.



승리를 향한 강렬한 열망과 열정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논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헌신을 빼놓을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먼저 창단한 스포츠팀이 바로 현대건설배구단이다. 승리를 향한 염원과 열정이 코트 위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배구라는 스포츠의 속성이 현대건설의 부단한 집념과 도전적인 승부사 기질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규칙에 대한 존중, 라이벌에 대한 격려, 관중을 위한 감동을 위해 팀워크로 하나 되는 현대건설배구단. 최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기에 언제나 '더 큰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기록, 새로운 감동을 위한 팀워크

2015~2016시즌 V리그 챔피언 결정전의 3전 전승, 9-0 무실 세트 우승이라는 완벽한 승리 뒤에는 열정을 불태우고 한계에 도전한 선수들이 있다. 파워풀한 공격력과 빈틈없는 수비력을 끊임없는 연습으로 완성한 선수들은 '팀워크'라는 강력한 구심력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써 내려가고 있다.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Hillstate Volleyball Team

연고지 경상남도 창원시(2005~2006년), 경기도 수원시(2006년~현재)

구단명 변천사	우승의 기록
	1985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1986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1987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1988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1989
	1990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2001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2002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2003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2004 · 대통령배-슈퍼리그 우승
	2005
	2006 · KOVO컵 우승
	2007
	2008
	2009
	2010 2010~2011 V리그 우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2016 V리그 우승
	2016
	2017

마산 현대건설 그린폭스

현대건설 여자배구단

수원 현대건설 그린폭스

현대건설배구단

- 1978. 11 제2차 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1979. 01 대통령배 제23회 종합선수권대회 준우승
- 1980. 12 제4차 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1981. 05 제36회 종합선수권대회 우승
- 1982. 01 신춘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02 제1차 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04 제2차 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1983. 04 제1,2,3차 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06 제38회 종합선수권대회 우승
- 1985. 01 제2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 07 제23회 박계조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 1986. 01 제3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 12 제24회 박계조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 1987. 01 제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 09 전국남녀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1988. 12 제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 대회 우승
- 1989. 12 제27회 박계조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 12 추계전국남녀실업배구연맹전 우승
- 1991. 01 제8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준우승
- 1992. 05 제2차 전국남녀배구대회 우승
- 12 제10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준우승
- 1993. 09 한국실업배구대제전 준우승
- 1994. 11 한국실업배구대제전 준우승
- 1995. 01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 1996. 01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우승
- 1997. 06 제52회 전국남녀종합배구선수권대회 우승
- 1998. 05 제53회 전국남녀종합배구대회 준우승
- 1999. 12 제2회 현대아산배 슈퍼리그 대회 우승
- 12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 12 한국배구 대제전 우승
- 2000. 11 한국배구 슈퍼배구 대제전 2차대회 우승
- 2001. 12 2002 배구 슈퍼 세미프로리그 우승
- 2002. 01 2002 한국실업배구 대제전 우승
- 11 제 8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 12 2003 한국배구 슈퍼리그 대회 우승
- 2003. 01 2003 한국실업배구 대제전 우승
- 01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 12 2004 V-TOUR 구미대회 우승
- 2004. 01 2014 V-TOUR 목포대회 우승
- 02 2014 V-TOUR 구미대회 우승
- 02 2014 V-TOUR 인천대회 우승
- 04 2014 V-TOUR 결승전 우승
- 2006. 09 FKOVO컵 양산 프로배구대회 우승
- 2007. 04 HILLSTATE 2006~2008 V리그 준우승
- 2009. 08 2009 부산·IBK기업은행 국제배구대회 준우승
- 2010. 03 2009~2010 V리그 정규리그 우승
- 04 2009~2010 V리그 챔피언전 준우승
- 2011. 03 2010~2011 V리그 정규리그 우승
- 04 2010~2011 V리그 통합우승
- 04 2010~2011 V리그 챔피언전 우승
- 2012. 03 NH농협 2011~2012 V리그 정규리그 3위
- 04 NH농협 2011~2012 V리그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
- 2013. 03 NH농협 2012~2013 V리그 정규리그 3위
- 2014. 07 안산우리카드컵 프로배구대회 우승
- 2015. 07 청주·KOVO컵 프로배구대회 준우승
- 2016. 03 2015~2016 V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

아름다운
카리스마

현대건설
배구단의

승승장구는
계속된다

MINI
INTERVIEW

현대건설배구단은 40여 년 동안
명실상부 대한민국 여자배구를
이끌어온 주역이다. 실업 배구부터
프로 배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매번 화려한 승부를 펼쳐온
현대건설배구단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여자배구는 빛나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배구단
주역들의 반가운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술, 정신력 모두 강한 팀으로 성장하길

류화석 전 감독(1999~2006년 감독 재임)



1999년 5월 감독으로
부임해 세미 프로리그를
포함, 6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우승을 휩쓸었던

호남정유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죠. 우승컵을
안고 선수들과故 정주영 명예회장님 자택을
찾아갔을 때 “앞으로 10년만 우승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우승을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이
배구단과 현대건설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주셨죠. 현대건설만큼 배구단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기업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노련한
기술과 강한 정신력을 모두 갖춘 팀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배구 명가의 이유 있는 자존심

장소연 SBS스포츠 해설위원(1998~2004년 선수 활동)



현대건설배구단의
역사는 한국 여자배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이은경·남명례 선수,

1990년대 김명숙·지경희 선수 그리고
2000년대 양효진·황연주·염혜선 선수까지 한
시대를 주름잡은 간판 스타들이 모두 활약했죠.
보통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배구 명가’라는
명성과 위엄을 올곧게 지켜내고 있고요. 선수
시절 레전드로 꼽히던 이도희 감독이 새
사령탑을 맡았기에 이번 시즌 더욱 기대가
큽니다.

후배 선수 여러분, 항상 응원할게요

이명희 전 선수(1998~2004년 선수 활동)



현대건설배구단이
출범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다른 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코트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마북리에 숙소가 들어섰을 때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도록 포켓볼장, 컴퓨터실 등의
공간도 마련해주셔서 역시 앞서가는 팀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장님께서 선수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주셨어요. 작은 부상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셨죠. 트레이너를
배치한 것은 아마 현대건설이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멋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높이와 파워, 스피드가 결합된 완벽한 플레이

이도희 감독(2017년 감독 부임)



현대건설배구단의
감독이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독이란 자리가 주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만큼

또 설레기도 합니다. 높이와 파워를 추구하는
현대건설배구단의 강점은 더욱 살리면서
스피드를 보강해 완벽한 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즐겁게 경기에 임하고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V리그 여자배구에 현대건설배구단이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팀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기 위해

양효진 선수(2007년 입단, 센터)



벌써 입단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내였는데
이제는 팀에서 최고참
선배가 되었죠. 그동안

외국인 선수가 영입되고 스타 선수가 많이
배출되면서 여자 배구는 점점 파워풀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커지고
있고요. 2010~2011시즌 통합우승의 영광을
이번 2017~2018 시즌에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선수로 매일 자라다

이다영 선수(2014년 입단, 세터)



현대건설배구단 하면
실력도 물론이지만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숙소에서 영양과 맛 모두를 갖춘 ‘엄마표’
식사까지 이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환경에 부합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
합니다. 부상 없이 매 경기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겠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김연진 선수(2011년 입단, 리베로)



프로 선수 생활을
현대건설배구단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의 강팀에서

베테랑 선배들과 함께 뛸 수 있어 늘 설렘니다.
2015~2016시즌은 입단 후 첫 우승이라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 우승의 감격을 2017~
2018시즌에서 다시 한 번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즌에는 새 유니폼으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현재 유니폼도 컬러나
라인이 너무 멋진데요, 새 유니폼을 입고 멋지게
활약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건설 시장
진출 1호의 전통은 계속된다

H-CHALLENGE

현대건설의 세계경영 출사표는
1966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로 시작되었다.
이는 국내 건설사 중 해외 건설 시장
진출 1호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후 현대건설은 세계 각지를 무대로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전 지구적인 가치에 부응하는
현대건설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창조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글로벌 진출은 끊임없는 도전의 기록이다. 열정으로 시작한 한 걸음은 보다 앞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와 파워풀한 실행력으로 꾸준히 가속도를 붙여왔다. 1966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로 해외 진출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59개국에 진출해 800여 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지구 끝 남극에 이르기까지 세계지도 위에 현대건설의 이름을 빼곡히 새기고 있다.

현대건설
해외 진출 국가
현황

6대륙
59개국

(출처: 해외건설협회)

북미/태평양 6개국
NORTH AMERICA & PACIFIC

괌(미)
미국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중남미 5개국
MIDDLE & SOUTH AMERICA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AROUND
THE

유럽 6개국
EUROPE

네덜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영국
터키

아프리카 8개국
AFRICA

가나
리비아
모잠비크
알제리
우간다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중동 11개국
MIDDLE EAST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아시아 23개국
ASIA

네팔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HYUNDAI
E&C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진군하다

WORLD

글로벌 랜드마크를 보면 현대건설이 보인다

5대양 6대주 곳곳 현대건설이
지은 세계의 랜드마크들이
있다. 현대건설은 우수한
기술력과 빛나는 아이디어로
태양이 작열하는 적도에서부터
동토의 남극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불굴의 의지를 아로새겨왔다.
글로벌 랜드마크들을
살펴보다 보면 현대건설의
70년 역사가 보인다.

기업문화사

ASIA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함께 현대건설의 오래된
수주 텃밭이다. 태국을 기점으로
싱가포르 선택시티, 말레이시아
가스정제시설, 파키스탄
차스마 수력발전소, 방글라데시
자무나 교량, 베트남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수주하며
아시아 전역에 ‘현대건설’의
이름을 알렸다.

홍콩 타이워 주택단지
베트남 비텍스코 파이낸스타워
싱가포르 선택시티
인도네시아 자고라위 고속도로
말레이시아 폐낭대교
방글라데시 자무나 교량
인도 아무나 교량
태국 파타나라티왓 고속도로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발전소

AMERICA & EUROPE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에서
현대건설이 주목한 지역은
중남미. 2010년 콜롬비아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칠레 지사를 잇따라
설립했다. 그 결과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우루과이
푼타델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미국
알래스카
허리케인 교량

캐나다 프레이저강 사장교
칠레 차카오 교량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우루과이 푼타델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호텔현대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불가리아 소피아 장애인 복지센터

MIDDLE EAST

현대건설은 1975년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 동원훈련조선소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공사로 중동
진출의 발판을 다진 현대건설은
1976년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는 9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 건설
신화의 새 장을 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UAE 두바이 아이 대관람차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카타르 국립박물관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시티
요르단 아카바 항만

OCEANIA & ANTARCTICA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와 남극 대륙은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때문지
않은 자연환경이 남아있는
곳이다. 특히 남극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조절하는 바로미터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미답(未踏)의 땅이다. 이곳에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십분 발휘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가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

호주 번버리항 준설공사
파푸아뉴기니 라무 수력발전 토목공사
괌 주택단지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AFRICA

중남미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불리던 아프리카. 현대건설은
1980년 리비아 라스라누프
항만 공사를 수주하며 진출에
성공했다. 이후 리비아 자위아
복합화력발전소, 알제리
아인아르나트 복합화력발전소,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3단계
복합화력발전소, 우간다 진자
교량 등을 수주하며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주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집트
포시즌
호텔



싱가포르
선택시티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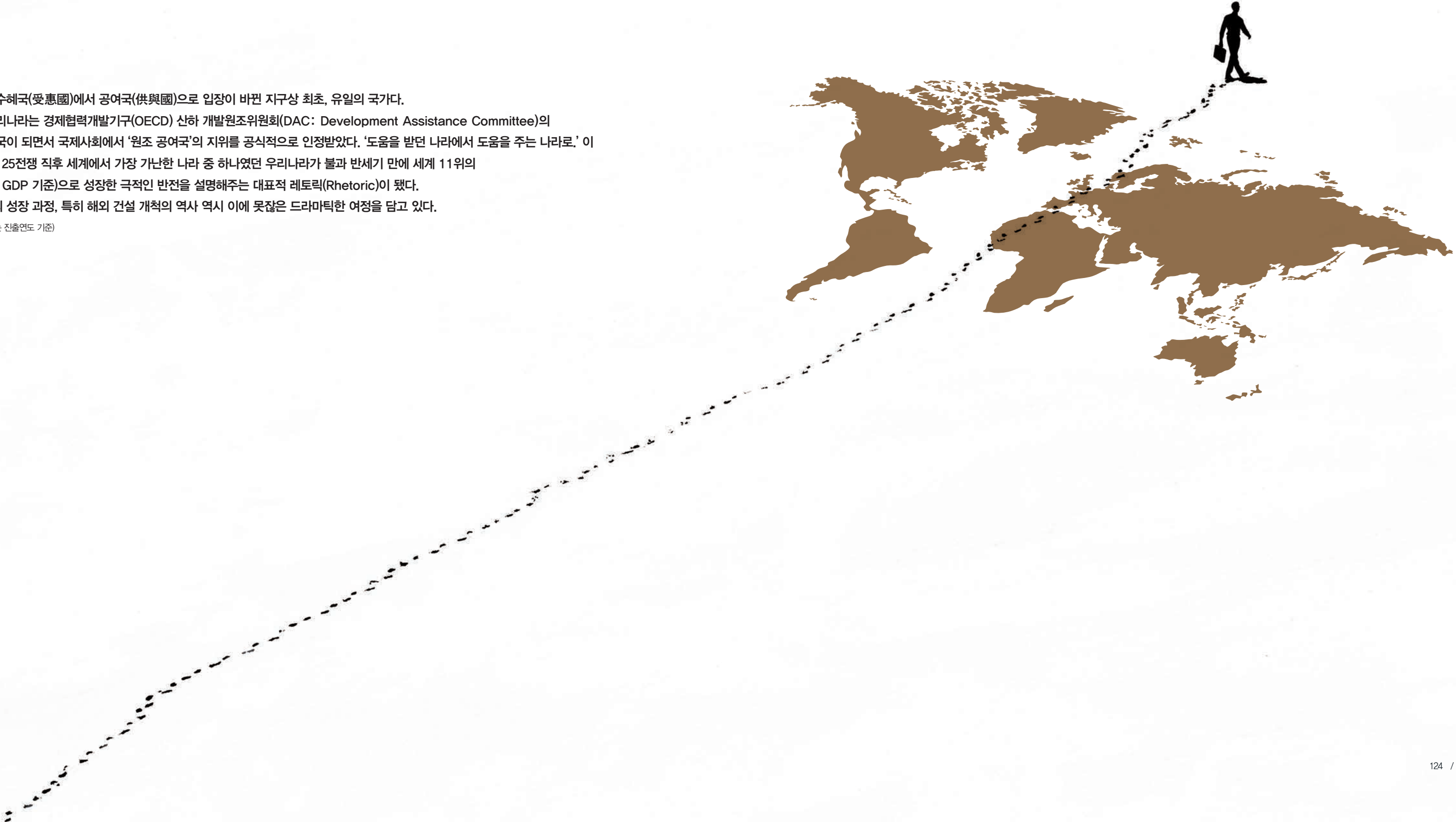
카타르
국립박물관



세계지도 위 현대건설의 발자취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受惠國)에서 공여국(供與國)으로 입장이 바뀐 지구상 최초, 유일한 국가다.
1996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스물네 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원조 공여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 한 줄의 문장은 6·25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2016년 GDP 기준)으로 성장한 극적인 반전을 설명해주는 대표적 레토릭(Rhetoric)이 됐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성장 과정, 특히 해외 건설 개척의 역사 역시 이에 못잖은 드라마틱한 여정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에 표기된 연도는 진출연도 기준)



수혜에서 시작된 반전의 역사

1940년대~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미군정이 시작된 1940년대 후반부터 반세기 가까이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였다. 6·25전쟁 후에는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를 비롯해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대외활동본부),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협조처) 등의 기관에서 지원한 원조의 상당 부분이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 사업에 쓰였다. 이외의 건설 사업이라고 해봐야 미8군이나 제5공병단 등에서 발주한 미군납 공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업들은 국내에서 건설업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데 소중한 거름 역할을 했다. 당시에 태동한 우리나라 산업 대부분이 그렇듯 건설업 또한 ‘원조’라는 국제적 수혜(受惠)의 바탕 위에서 태어난 셈이었다. 이 시기 많은 도로와 건물, 전력시설과 공장 등 기반시설이 복구되고 새롭게 건설됐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건설’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자

본과 자재는 물론이거니와 기술력과 장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고, 당시 우리의 건설업이 보탠 것은 풍부하다 못해 남아돌 지경으로 넘쳐났던 노동력뿐이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나라는 ‘건설을 하는’ 나라라기보다는 ‘건설을 수입하는’ 나라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1965년 11월 현대건설은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해 이듬해인 1966년 착공에 들어가 우리나라 첫 해외 진출의 물꼬를 텄다. 이때부터 한국 건설 해외시장 개척의 첫 문장은 언제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에서 시작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첫 해외 진출을 성공시킨 후 현대건설은 그대로 해외 건설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 01 인도네시아 자고라위 고속도로(1973)
- 02 싱가포르 플라우테콩 매립(1981)
- 03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1966)
- 04 미국 알래스카 허리케인 교량(1970)
- 05 파푸아뉴기니 라무 수력발전소(1972)
- 06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해군기지(1975)
- 07 미국 괌 주택단지(1971)



해외 건설 개척기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1966년 현대건설의 첫 해외 진출 이후 중동 건설 붐이 본격적으로 점화하기 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의 10여 년 동안은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개척기라 할 수 있다. 최초 진출국인 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쟁 특수가 발생한 베트남 등지가 주요한 대상국이었으며, 미군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서태평양의 미국령 괌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시기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올린 해외 건설 실적은 296개 공사에 걸쳐 약 6억 8300만 달러 정도였다. 현대건설은 이 가운데 4분의 1에 육박하는 1억 63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해외 건설 개척기 현대건설의 활약상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축적한 고속도로와 플랜트 건설 경험은 1970년을 전후해 개막한 경부고속도로 등 국내 고속도로의 건설 러시와

중공업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훌륭한 디딤돌이 됐다. 베트남에서는 캄란만 항만 준설·매립 등 대단위 토목공사를 수행했으며, 괌에서는 미군 발주 공사 외에 자체 사업을 전개해 건축(주택)·전력(통신)에 걸쳐 다양한 건설 경험을 쌓았다. 알래스카 허리케인 교량 건설, 번버리항 준설 등 최초의 미국과 호주 시장 진출도 이 시기에 이뤄진 일이다. 모두가 동남아시아 일대 토목공사 일변도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고무적 성과였다.

중동 건설 붐의 주역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1970년대 중반부터 움트기 시작한 중동 건설의 바람은 현대건설을 세계 무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었다. 1975년 3월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 동원훈련조선소 공사 수주로 숭고그기를 시작한 현대건설은 일단 대형 공사를 거머쥐며 중동 건설 붐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 가운데 1억

3700만 달러 규모의 바레인 아랍수리조조선소는 OPEC 7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국적 대형 공사로 막대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이들 산유국들에 현대건설의 이름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기세를 몰아 이듬해인 1976년 6월에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공사는 반세기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사 초반의 최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9억 6000만 달러, 가히 전대미문의 규모를 자랑하는 20세기 최대의 역사(役事) 주베일 산업항 건설은 이후 중동 건설 시장에 불어닥친 한국 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거세게 타오른 중동 건설의 불꽃 속에서 현대건설은 거침없는 도전과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한국의 건설업은 명백하게 국가 경제를 선두에서 이끈 성장의 견인차였다. 건설업은 특성상 원자재 등 수입 유발 요인이 적다. 특히 당시의 중동 건설은 국내 인력의 낮은 인건비 때문에 외화 가득률(稼得率)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해외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를 상회했고, 그만큼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1981년을 기해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해외 건설 연간 1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1983년까지 세 해 동안 내리 '중동 건설 붐'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선두를 이끈 것은 단연 현대건설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에 걸쳐 이른바 지속된 '제1차 중동 건설 붐' 기간 동안 국내 건설업계 전체와 현대건설이 올린 수주고는 각각 732억 2400만 달러와 159억 5100만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중동에서 올린 실적은 568억 6500만 달러와 134억 8300만 달러였다. 건설의 프런티어는 마치 유목민과 같다. 찬바람이 불고 목초(牧草)가 사라지는 겨울이 오면 유목민은 새로운 초지(草地)를 찾아 나서야 한다. 경제와 사업에는 늘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교차점에 설 때마다 현대건설은 초지를 찾아 길을 떠나는 목동처럼 새로운 시장을 향

해외 진출 주요 히스토리

1966	국내 최초 해외 건설 진출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1976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착공
1999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2, 3단계) 공사 착공
2009	UAE 원전 컨소시엄 참여 국내 최초 해외 원전사업 수주
2012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공사 수주

- 01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바 공공주택(1978)
- 02 싱가포르 선택시티(1992)
- 03 싱가포르 마리나센터(1982)
- 04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4·5단계(2002)



한 불굴의 도전을 계속했다.

1966년 최초의 해외 진출 이후 현대건설이 중동이라는 미지의 시장을 집요하게 공략한 것은 불현듯 불어닥친 오일쇼크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1973년과 1979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두 번의 오일쇼크를 그 어떤 국가보다도 슬기롭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현대건설을 위시한 국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중동 시장 공략과 성공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런 면에서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회자되는 당시 우리나라의 비약적 성장은 '페르시아만의 기적'으로 불려도 크게 어색함이 없을 것이다. 페르시아만의 기적은 국가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 아니라, 현대건설의 역량도 크게 향상시켰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공종의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면서 세계적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강력하게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중동 진출 초기만 해도 주류를 이뤘던 토목 분야의 단순 시공을 넘어 건축, 전력, 플랜트로까지 건설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이 시기 현대건설이 이룩한 가장 의미 깊은 사업 성과 중 하나였다.

격변의 시기, 다시 시장을 개척하다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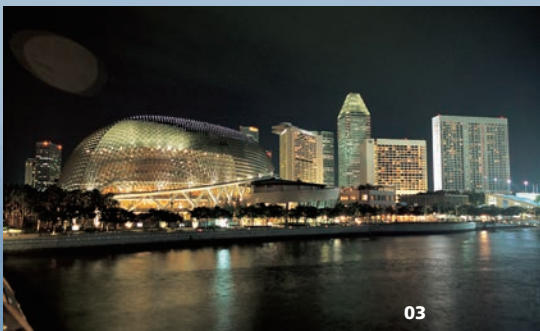
자유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서서히 침체의 길로 들어선 중동을 대신해 현대건설이 새롭게 주목한 시장은 동남아시아였다.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중동 건설에서 불었던 현대건설의 바람이 말라가 해협에서 다시 한 번 거세게 몰아쳤다. 시장의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중동이라는 해외 건설의 강력한 동력을 상실한 국내 건설업계가 좌충우돌을 거듭하는 사이 현대건설은 동남아시아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건설업계는 수년에 걸쳐 해외 수주 실적이 급전직하를 거듭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현대건설만은 그 여파에서 어느 정도 비껴서 있을 수 있었다.

홍콩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현대건설의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절정으로 이끈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1981년 5월 플라우테콩 매립공사로 싱가포르에 첫 진출한 현대건설은 이후 잇단 대규모 매립공사를 전개, 전체 국토의 6% 이상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마리나센터·선택시티·아시아 스퀘어타워 등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잇달아 건설함으로써 싱가포르를 거대한 마천루(摩天樓)의 도시로 만들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거둬들이기 시작한 동남아시아 시장과 함께 공산권 국가에 대한 이른바 북방 시장 진출도 이 시기 현대건설 해외시장 개척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필두로 중국의 베이징과

다롄에서, 북한의 평양에서도 현대건설의 깃발이 일제히 나부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 전역에 불어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를 IMF 외환위기로 깊숙이 몰아넣었다. 당시 해외 건설의 본진 역할을 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시장의 급작스러운 몰락과 국내 경제의 격동은 창립 50년 동안 불퇴의 전진을 거듭하던 현대건설에도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유례없이 추웠던 IMF 외환위기의 그 긴 겨울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내준 초지는 또다시 중동이었다.

1999년 3월에 수주한 3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2·3단계는 중동 건설 시장의 화려한 턴어라운드와 함께 현대건설의 대규모 플랜트 시장의 개화를 알리는 본격적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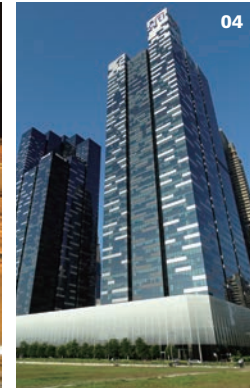
호탄이었다.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2·3단계에 선보인 현대건설의 플랜트 건설 능력은 곧장 4·5단계 수주로 이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등 중동 지역에서 오일·가스를 비롯해 발전·제철 등 다양한 대규모 플랜트 성과가 줄을 이었다. 특히 2010년 3월에는 1400MW급 원전 4기로 구성된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거대한 플랜트 부문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현대건설의 사업 능력이 한층 진일보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었다. 1960년대 시공 위주의 컨스트럭터(Constructor)로서 해외시장에 진출한 현대건설은 이즈음 엔지니어링(Engineering)과 조달(Procurement)의 EPC를 넘어 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의 단계로 빠르게 이동해가고 있었다.

해외 건설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다

2000년대 중반~2010년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21세기 초반의 5년여 동안은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았다 해도 좋을 정도로 실적이 급격하게 반등한 시기였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직 미치기 전인 1997년 연간 140억 300만 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던 수주 실적은 이후 끝없는 추락을 거듭, 2003년 36억 6800만 달러까지 내려앉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조기 졸업 등 빠른 속도의 위기 돌파와 중동 건설 붐의 재점화, 동남아시아의 경기회복 등을 발판 삼아 2010년 715억 7800만 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눈부신 실적 향상에 따른 실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건설업계의 반등을 주도했던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의 지나친 출혈경쟁과 2008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글로벌



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사업의 진척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 건설업체는 2010년대 초반 일시적인 어닝쇼크(Earning Shock)를 겪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 시기에도 거침없이 질주했다. 몸집 불리기만을 염두에 둔 저가 수주의 위험성을 조기에 감지한 현대건설은 이후의 수주 전략을 수익성 위주로 전환했다. 2011년 4월 전격적으로 이뤄진 현대자동차그룹 합류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철강-자동차-건설로 이어지는 그룹 3대 핵심 사업의 주축으로서 세계 190여 개국에 걸쳐 구축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의 든든한 자원과 함께 해외사업 수행능력·리스크관리·연구개발 능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이뤄졌다. 해외 건설의 전략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시장

다변화에 역점을 뒀다. 유가(油價)의 등락과 돌발적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게 산개(散開)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공략을 개시한 곳은 중남미 지역이었다. 2010년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베네수엘라·우루과이·칠레 등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역 거점을 정비한 현대건설은 더욱 적극적인 수주전을 전개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지역에서만 약 290억 6500달러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 CIS 등 신흥시장 전반에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해외 건설의 성장을 주도했던 플랜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종을 한층 다양화한 것도 눈길을 뒀야 할 대목. 첨단 컨버전스 기술이 적용된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와 세계 최고의 교량기술을 자랑하는 터키 보스포러스 제3대교,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등의 초장대교량, 궁극의 비정형 건축을 구현한 카타르 국립박물관 등 다양한 토목 구조물과 건축물이 해외 건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있다. 시장과 공종 다변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건설이 해외 건설에서 보인 눈부신 활약은 뛰어난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연간 해외수주 100억 달러 시대를 연 현대건설은 내리 3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의 대기록을 이어간 2013년 누적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의 신기원을 열었다. 1966년 최초의 해외 진출 이후 2016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현대건설이 수주한 해외 건설 실적은 총 1186억 5200만 달러(출처: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달하며, 이는 동기간 국내 건설업계가 기록한 7504억 3100만 달러의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01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2013)
- 02 베트남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2011)
- 03 쿠웨이트 오일부두 및 점안시설(뉴오일피어)(2000)
- 04 싱가포르 아시아 스퀘어타워(2009)
- 05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조감도(2012)

오대양 육대주로

힘차게 뻗어나가다

글로벌 진출 타임라인

(참고: 해외건설협회, 진출연도 기준)



세계는 매해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길이 생기고 초고층 건축물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먼 거리의 육지와 육지를 잇는 다리가 그 위용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이내믹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최초로 진출한 현대건설의 기록을 모았다.

1960

•

첫걸음을
내딛다

1966.01.07	태국 파타나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1966.03.21	베트남 캄란만 준설공사
1969.09.02	괌(미) 안테나 설치공사

1970

•

개척정신을
드높이다

1970.01.02	미국 알래스카 허리케인 교량 공사
1970.03.01	호주 번버리항 준설공사
1972.04.01	파푸아뉴기니 라무 수력발전 토목공사
1973.10.01	인도네시아 자고라위 고속도로 공사
1975.03.10	이란 반다르 압바스 동원훈련조선소 공사
1975.10.18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 공사
1975.12.01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해군기지 해상공사
1977.06.18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만 확장공사 1·2단계
1978.01.15	UAE 두바이 발전소 공사
1978.07.29	이라크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
1979.02.01	카타르 도하셰라톤호텔 공사
1979.08.15	예멘 132~33kV 변전소 공사
1979.09.04	말레이시아 빈톨루 심해항 부지 정리공사

1980

•

무대를
확장하다

1980.08.25	오만 미나 알 파할 정유공장 공사
1980.09.30	리비아 라스라누프 항만 공사
1981.05.13	싱가포르 플라우테콩 매립공사
1981.09.22	미얀마 나웅카트 다목적댐 공사
1985.12.30	홍콩 타이워 주택단지 공사
1986.01.06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본점 신축공사
1986.07.11	캐나다 프레이저강 사장교 공사
1987.04.01	파키스탄 타르벨라댐 공사
1988.04.25	스리랑카 사마날라웨와 수력발전소 롯트 2 토목공사

1990

•

시련으로
담금질하다

1990.01.16	가나 정유제품 저장시설 설계용역
1990.01.31	피지 싱가포르 교량 건설 설계 및 감리용역
1990.11.01	일본 도쿄 이스트-21(EAST-21) 공사
1992.01.19	네팔 2차 도로 개선사업
1993.06.24	인도 나트파 자크리 수력발전소 공사
1993.08.12	요르단 와디에시르 지역 하수처리시설 공사
1993.08.25	레바논 전력복구공사(PKG.B.송전선)
1994.10.01	중국 상하이 현대전자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1994.10.15	아제르바이잔 수력발전소 기술용역
1995.04.20	몽골 발전소 개보수공사 감리
1995.07.0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호텔현대 공사
1996.02.01	브루나이 제루동 방파제 공사
1996.12.19	영국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공사
1997.07.01	튀니지 튀니스 스포츠센터 공사
1998.03.10	불가리아 소피아 장애인 복지센터 공사
1998.11.30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바시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 공사
1999.01.15	마카오 엔터테인먼트타워센터 공사
1999.02.09	이집트 SAID항 동부 준설 및 해양공사
1999.03.21	방글라데시 60MW GTPS 바지, 운송, 준설, 견인

2000

•

힘차게
재도약하다

2000.01.05	루마니아 페트르브라지 50MW 열병합발전소 공사
2000.05.01	대만 고속철도 C240 공구 공사
2000.09.28	브라질 포르토벨로 340MW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2010.08.01	모잠비크 모아티즈 600MW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2011.12.15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3단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2012.06.14	베네수엘라 산타이네스 정유공장 공사
2012.09.17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
2012.11.25	알제리 아인아르나트 1200MW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2012.11.28	우루과이 푼타델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2013.06.27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공사
2013.06.30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발전소 확장공사
2014.01.15	우간다 진자 교량 공사
2014.02.19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2014.07.31	네덜란드 오이스터 실험용 원자로 개선공사
2015.09.06	몽티모르 수אי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 공사

2010

•

다변화로
가치를 높이다

현대건설의 빛나는 수상 기록들

현대건설은 세계 건설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불굴의 저력과 도전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나가고 있다.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노력, 그 빛나는 성과를 소개한다.



열다
짓다

—— 그리고

잇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현대건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017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현대건설 70년사〉를 만든 사람들

사사 편찬위원장	정수현 사장
사사 편찬실장	백경기 부사장
	한성호 상무
사사 편찬실무위원	
경영지원본부 홍보실	김윤 부장대우
	김승희 과장
사사 편찬 TF팀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인프라환경기획실	김민지 차장
	김성실 대리
건축사업본부 건축기획실	김영록 차장
	노신혜 사원
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기획실	이한솔 사원
전력사업본부 전력기획실	최성호 과장
	유진 대리
연구개발본부 R&D지원팀	최민지 대리
	김미연 대리

제작

기획·디자인	디자인21
원고집필	디자인21(기업문화사), 박성욱(프로젝트사, 통사)
사진촬영	김영준, 김범기, 안용길
인쇄	세화인쇄사



발행처 현대건설 _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www.hdec.kr

발행인 정수현

발행일 2017년 5월 25일